



時計塔

SIGETOP



2010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37권 2호

172-10 45th Avenue, Flushing, NY 11358
snucmaa@yahoo.com / www.snucmaa.org
Tel: (718) 888-2622 Fax: (718) 888-2608

발행인: 李成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李惟贊 徐亮 盧在煜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제27차 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March 17 ~ 21, Paradise Pier Hotel, Disneyland, CA



2009-2010 제1차 대의원회의 초록

일 시: 2010년 3월 17일(수요일) 오후 4시

장 소: Oceanside Room, Paradise Pier Hotel, Disney land, California

참석자: 이만택(58) 임종원(60) 이재승(61) 이상무(62) 손영진(62) 김태웅(63) 김택수(63) 이흥표(64) 조동준(64) 최준희(64) 권정덕(64) 변영석(69) 윤효운(69) 이성춘(70) 광승용(71) 김성환(71) 이석규(71) 이희영(71) 박진국(71) 정인용(71) 고용규(73) Mrs. 안병일(69)

Proxy: 노용면(55) 김웅식(55) 정규영(57) 이운순(58) 김병석(59) 채규철(59) 김은섭(59) 최종진(59) 조명호(62) 한기현(63) 이유찬(64) 한태진(64) 김태환(64) 이한중(65) 황규정(65) 최영자(66) 이명희(66) 이태석(67) 이근웅(67) 한영수(67) 김희주(68) 이견일(68) 강태수(71) 오상현(71) 권영조(72) 오용호(72) 문대욱(73)

1. 박진국 총무의 성원 보고 (총 91명중 22명 참석-3명 겸직, 과 28 Proxy) 와 개회 선언.

2. 2008-2009 제2차 Delegate Meeting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 재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3. President's report

a. 전 회의 초록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던 China Medical Board Fund(CMB fund로 칭함)를 설명하시고, Chase Manhattan Bank에서 사라진 \$550,000의 기금을 추적하기 위한 Ad Hoc committee의 경과보고를 함. 본국으로 송금된 Fund는 의과 대학에서 받았음을 서면으로 통보해 줌. 수고하신 Ad Hoc committee chair 구경희와 이흥표, 최준희 권정덕 동문들에게 감사를 포함.

b. 작년 회계 연도의 재정 보고 : 이월금 \$19,000, 금년도 재무 보고는 \$40,000의 장학금 등 자세한 보고는 다음 번 회의에서 서면보고 하기로 함.

c. 작년도 합춘 의학상과 연구비는 김광식(71) 동문이 이미 수상했고 금년 3월에 예정 되어 있는 합춘 대상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음.

d. 내일부터 열리는 제27차 Annual Convention을 위해 일하시는 동문들과 참석하시는 동문들과 가족들께 감사함을 전함.

4. Committee reports

(1) Scholarship(여천기 위원장): SNUCMAA 장학금 \$2,000씩 10명에게 지급됨 (10명 중 5명은 본국의 Green Project 장학생임), 2010년도 송관호 선생님 \$10,000 (미주 1명, 본국 1명)과 오태요, 김건언 장학금 \$10,000 (본국 2명)이 입금 되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임.

(2) Fund raising(김일영 위원장): Convention을 위한 동문들과 Company들의 Donation과 협조가 계속 되고 있어 예상보다 성과가 좋다고 보고.

(3) Research and Fellowship(손영진 위원장): 합춘의학상 연구비는 \$20,000이 한국에서 수여되며 한 동문이 두 번 이상 탈 수 없음을 보고.

(4) Silver project Committee(조명호 위원장): 헝가리와 발칸반도 4개국 여행은 거의 마감이 됐으며 러시아와 북유럽 여행은 8월 28일에서 9월 10일까지 14일간 제한인원 42명으로 많이 참가 바람에 아시아 여행사(1-800-774-0066)로 연락해 주시기 바람.

(5) By-Laws Committee(노용면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6) Nominating Committee(윤효운 위원장): 2011-2012 40대 회장에는 Delaware의 문대욱(73), 2010-2013 이사명단은 이만택(58-PA), 김병오(69-MD), 엄규동(69-NJ), 광승용(71-NY), 김웅식(71-MI), 박진국(71-CA), 서인석(73-NJ), 박일우(77-CA), 백승원(79-NJ), 조형기(92-CA)로 추천 결정했음을 보고.

(7) Office Management Committee(광승용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8) 2010 Convention Committee(이석규 위원장): 현재 11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더 많은 동문들의 참석 예상. 참석자는 CME 12시간을 받으려면 매일 아침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고 Evaluation form을 작성해 주시길 당부 함. CME Speaker들은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

(9) Golf Chair (Mrs. 안병일): 3일간 매일 60명에서 72명의 골퍼를 예상하고 있으며 첫째 날과 셋째 날의 점심은 동창회에서 준비하고 둘째 날은 골프장에서 제공됨. 동기들끼리 칠 수 있게 조를 편성 할 것임.

5. New Business:

(1) 최영자 전 회장이 만든 Charity fund(현재 \$6,000 잔고)의 배경 설명과 현 회장 이성춘께서 계획 중인 \$1,000의 Haiti 성금을 여러 동문들께서 찬성하며, 성금을 보낼 곳은 미국 전체이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재앙이 있을 때 도와주기로 결정. 이사회의 표결(이메일도 가능함)이 필요함을 안건 화했음.

\$2,000 이상의 성금은 이사회 표결로 지불하고 \$2,000 이하는 시간 절약과 간소화를 위하여 현 회장 재량으로 지불 할 수 있다고 22명중 1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2) "시계탑에 영문 기고" 의 찬, 반론을 조동준(찬성), 김태웅(반대) 동문들께서 토론하였고 윤효운 전 회장께서 English Manuscript Correction에 대해 설명 하시면서 가능함을 확인.

(3) 정인용(71) 차기 회장의 인사와 시계탑의 한국어 사용의 장점을 설명함. 장래에 SNUCMAA Web-site를 현재보다 쉽게 들어 갈수 있고 더 전문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는 계획을 전함.

(4) 매년 늦어지는 Financial Report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끝낼 것을 건의 함.

오후 6시에 폐회 - 총무 박진국 보고

2009-2010 제2차 이사회의 초록

일 시: 2010년 2월 27일(토) 오후 6시

장 소: Oxford Place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참석자: 손영진(62) 조명호(62) 김태웅(63) 조동준(64) 이흥표(64) 안병일(69) 이성춘(70) 이석규(70) 최원일(70) 이희영(71) 김일영(71) 박진국(71) 차민영(82) 조형기(92) 안상훈(94) Mrs. 안병일(69)

Proxy: 노용면(55) 이운순(58) 김은섭(59) 김병석(59) 이재승(61) 이상무(62) 한기현(63) 추재욱(63) 이유찬(64) 한태진(64) 조의열(66) 이명희(66) 최영자(66) 최순채(66) 이태석(67) 한영수(67) 윤효운(69) 오동환(71)

광승용(71), 정인용(71), 오용호(72), 임준형(73)

1. 박진국 총무 (53명 중 16명 참석자와 22명의 Proxy, 4명 겸직)의 개회 선언
2. 2000-2010 제1차 이사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 재청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3. President Report

a. Scholarship의 현황과 운영 현실을 설명.

b. 서울의과 대학 임정기 학장이 우리 동창회에서 본국 의과 대학생에게 주고 있는 \$10,000의 장학금과 Match 되는 \$ 10,000을 합하여 본국 의과대학생 10명에게 미주 동창회 명의로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본국을 방문한 이성춘 회장에게 약속하였고 확인 편지를 동창회에 보내 줌.

c. 이번 Convention 에 참석하는 모든 동문들께 서울의대 Logo가 들어있는 탁상시계를 드리며 Speaker들께는 서울의대 Logo가 들어있는 벨트를 드릴 것임.

4. 재무 보고 (박일우 재무)

a. 3월 17일부터 있을 Convention의 등록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과 Donation 금액이 나오지 않았음.

b. 2월 27일 현재 많은 분이 Convention 등록을 하고 있어 임원진들의 사기가 높아 있음.

5. 총무 보고 (박진국 총무): House of Delegate Meeting이 3월 17일에 Paradise Pier Hotel에서 열릴 예정 임.

6. Committee Chairs Report

Finance (이흥표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Scholarship (여천기 위원장 불참) : 서면보고 (다음 회의에 보고 예정)

Fund Raising (김일영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위원장 불참)

Advisory & Exchange (권영조 위원장 불참)

Green Project (안상훈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Silver Project (조명호 동문): 작년 동구 여행에 이어 금년에도 뉴욕에 있는 아시아 관광 여행을 통해서 4월19일부터 5월 10일까지 발칸반도 4개국 및 헝가리 여행과 8월28일부터 9월 10일까지 러시아, 북유럽 3개국 여행이 준비되어 있고 아직도 참석 하실 수 있음.

Fellow and Research (손영진 위원장) : 보고 사항 없음

By Law (노용면 위원장): 보고 사항 없음.

Convention (이석규 위원장): 24 Lecture와 10 non-CME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있으며 감사들에게 Honorarium을 못 드리는 대신 감사장과 선물을 주기로 했음.

- Golf Tournament (Mrs. 안병일): 아직 등록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고 가능한 조기 등록을 해야 조 편성 및 예산에 차질이 없으므로 주위의 동기나 아는 분들을 독려하여 조기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람.

- Non-CME (Mrs. 이성춘): 이번 Convention에는 많은 동문들의 의견이 좀 더 즐거운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자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주 색다른 Convention이 될 것이라고 보고함.

마지막으로 이성춘 회장의 격려의 말과 그동안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오후 8시30분에 폐회. - 기록 : 박진국 총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이성춘 회장님 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 회장님의 의과대학 방문과 합춘총녀회의 참석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아울러 미주동창회에서 지원하는 해외선택의 학과장 장학금 수여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유익하였습니다.

대학은 그동안 미주동창회에서 모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현재 해외선택의학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미주동창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에 matching fund로 매년 1만달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매년 2만달러의 예산으로 10명의 학생에 대한 지원을 미주동창회 주관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Green Project 담당 이사와 박용양 학생부학장 간의 협의로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책내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학장 임정기 배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이성춘 회장님께

지난 7월 방문시 베풀어 주신 후의에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9일자로 보내주신 회장님의 편지를 받고, 우리 대학의 기록들을 조사한바 불임과 같은 증빙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991년도에 우리대학으로 이관한 재미동창회기금 1백만달러(한화 7억원: 의과대학 기금관리위원회 93-2차 회의록 1페이지에 재미동창회로 표시, 당시 환율 약 700원/\$1)은 1993년도에 의과대학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을 거쳐 의과대학 교육연구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2009년도 현재 약 300여원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며 과실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첨 1)

두 번째 5십5만달러에 관한 사항은, 1991. 3. ~ 1992. 12 사이의 발전기금 조성 내역에 CMB로 명시된 자금 4억원도 포함되어 있는 바 (당시 환율 연평균 약 721원/\$1),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서울의대에서 인출하여 교육연구재단으로 이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항 역시 1993년도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동일한 의결절차를 거쳐 교육연구재단의 기금으로 적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1백만달러를 대학으로 이관하면서 약속된 매년 7천~1만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의 미주동문에 대한 연구비 지원 건은 기록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매년 동창회 학술상 지원 경비로 한화 1천만원의 의과대학 동창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사본은 함께 보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의 노력으로 CMB로 부터 지원 받은 기금은 우리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상기하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미주 동창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학장 임정기 배상

회비, 헌금하신 동문 명단

2010년 4월 10일 현재

회비 납부하신 동문 명단

1947 장석주	1948 한용현	오동렬
1949 박근수	김지익	이형모
1951 곽 홍	이재필	이상하
1952 김은태	김정준	박정식
1954 김갑근	이동식	
1956 조동립	도상탁	주창준
유호준	윤신원	김익창
1957 차봉희	정진목	정규영
임종식	임종식	윤 찬
1958 최창송	한영수	김기태
이동복	이종용	이종국
이상설	유치열	신상균
1959 반용균	최대한	최종진
강재룡	강상진	김병구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1960 조재동	전희근	김인환
이순환	임종원	오신중
이애영		박준명
1961 안창현	장성환	장태환
황현상	정의철	강창욱
이희백	이희경	이재두
1962 장병호	장순필	진흥우
권익현	이상복	이상무
박진수	박종건	이경욱
1963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김택수	김충열	김현화
이범세	마동일	박세복
윤진수	윤영섭	윤영욱
1964 안연승	방효준	차용만
조동준	정유석	강창만
이길수	이광신	유광현
이중오	이유찬	유효명
선우세현		유창남
1965 안경식	채무원	채도경
김육현	구경희	김육현
이재진	이정의	서와일
1966 장한교	조충열	조관상
김의신	김진호	김우신
김진수	김강길	이명희
1967 최무용	한영수	정 명
이영균	박정일	유진일
1968 안세현	차재철	최 철
이건일	임공세	문광재
유우영	김태기	서영일
1969 안병일	변영석	최종진
이충호	임용규	신영찬
1970 방준재	조영갑	최광택
노승국	인정길	유철희
1971 배성호	장 철	조세진
김효순	김일영	김재홍
오동환	오상현	서정자
1972 오용호	장병호	최인섭
김광호	이기진	정희현
1973 방병기	나두섭	이계석
서인석	심완섭	
1974 최태식	김용진	구재훈
1975 김자역	김명호	박인영
1977 강준희	박일우	
1979 백승원	김옥동	이명혜
1981 김흥완	최선희	남명호
1983 전원일	김봉섭	심인보
1976 정경화	한승신	김정아
1978 김동수		
1980 박남훈		
1982 차민영	이미정	
1992 조형기		

Donation

박근수(49) 75	김형건(53) 75	노용면(55) 500	김익창(56) 200	신상균(58) 100
한영수(58) 25	김윤범(58) 100	정태진(59) 25	강상진(59) 200	김병구(59) 75
이교락(59) 25	정태진(60) 25	장성환(61) 100	김한중(62) 100	선우건영(63)200
송용덕(63) 100	왕규현(63) 200	장세곤(63) 200	이재풍(64) 100	조동준(64) 200
허선행(64) 200	구경희(65) 125	김주평(68) 75	이건일(68) 100	차재철(68) 75
변영석(69) 100	여준구(70) 50	강태수(71) 75	김유식(71) 100	서상현(71) 75
서정자(71) 25	조세진(71) 100	오용호(72) 200	박인영(75) 50	김동수(78) 100

Total: \$ 4,050

2008-2009 Green Project Fund List

김신형(56) 500	최창송(58) 50	정태진(59) 15	한성수(60) 75	김태환(64) 100
민발식(66) 100	배성호(71) 100	서인석(73) 100	방병기(73) 100	전경배(75) 100
백승원(79) 200	심인보(83) 100			

Total: \$1,540

2007-2008 Charity Fund List

서상철(56) 75	정태진(59) 25	박명근(60) 75	최영자(66) 50	조세진(71) 75
방병기(73) 100	김자역(75) 100	백승원(79) 200		

Total: \$700

2010 Annual Convention Donation

강신호(52) 1000	동형근(57) 75	김기태(58) 275	신상균(58) 200	최창송(58) 100
정태진(59) 10	권기홍(60)1000	황현상(61) 100	강창욱(61) 50	손영진(62) 500
여천기(62) 110	권영조(63) 500	김태웅(63)1000	임춘수(63) 200	김현철(63) 75
조한원(63) 100	임춘수(63) 200	한기현(63) 100	전희택(64) 100	이흥표(64)2500
권정덕(64) 200	박성민(64) 200	이근웅(67) 300	안병일(69) 875	윤호윤(69) 200
변영석(69) 200	이석규(70) 500	이성춘(70)2000	김성환(71) 300	김유식(71) 310
김일영(71)1000	윤기철(71) 200	장재철(71) 75	조세진(71) 200	곽승용(71) 100
정인용(71)3000	장 철(71) 75	이동일(72)1000	나두섭(73) 200	서인석(73) 325
구재훈(74) 300	권오기(78) 100	백승원(79) 300		

Gilead Sciences Inc. 3000
서울의대동창회 3000
St. Jude Medical 7000

Bristol-Myers Squibb 2000
Zimmer Spine 5000
Advanced Health Meadia LLC 1000

Total: \$51,970

2008~2009 FINANCE REPORT

GENERAL FUND - Current

REVENUES		
Membership Dues		63,370
Scholarship Contribution	21,000	
Less: Transfer Out to Scharship Fund	(21,000)	
Public Donations (Sigetop etc)		16,850
Total Revenue		80,220
EXPENDITURES		
Bank Charges	51	
Advertisement	330	
Computer Equipments	1,187	
Executive Committee & Committee Meeting	4,508	
Fraternity Activities	683	
Payroll and Rayroll Taxes	30,779	
Newspaper(Sigetop) Publication and Mailing	21,169	
Postage/Shipping/Delivery	\$1,262	
Printing, Copying, supplies and Office Expenses	440	
Revenue Sharing	960	
Professional Fee	2,463	
Telephone	2,008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895	
Utilities	1,020	
Total Expenditures		67,755
Excess of Revenues over(Unver) Expenditures		12,465

GENERAL FUND -BALANCE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08	(5,459)
Increase (Decrease)	
General Fund Current Fiscal Year	12,465
Transfer from(to) Summer Convention	19,108
Excess or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31,573
Fund Balance as of June 30, 2009	26,114

BALANCE SHEET

ASSETS		
Cash in Bank	75,680	
Total Assets		75,680
LIABILITIES		
Due to Hamchoon Research Project Fund	1,430	
Due to Scholarship Fund	24,194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0,542	
Appropriate Fund for Revenue Sharing	3,400	
Total Other Increase(Decrease) in Cash Position		49,556
Net Fund Balance		26,114

MEDICAL CONVENTION

REVENUES		
Charity Contributions		44,489
Revenue from Members	109,839	
Refund	(1,970)	107,869
Total Revenue		152,358
EXPENDITURES		
Convention related Expenses	90,224	
Gifts and Awards	3,617	
Printing & Copying	6,209	
Golf and Tennis	25,450	
Postage and Shipping	158	
Travel Expense Reimbursements	838	
Supplies	6,237	
Committee Meeting	517	
Total Expenditures		133,250
Excess of Revenues over(Under) Expenditures		19,108

GREEN PROJECT FUND

REVENUE		
Revenue from Members	4,650	
Total Revenue		4,650
EXPENDITURES		
Green Project Funding	382	
Total Expenditures		382
Excess of Revenues over (Under) Expenditures		4,268
Beginn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16,274
Ending Appropriate Fund for Green Project		20,542

2010 골프 토너먼트 보고

3월 18일~ 3월 20일 2010년



짧게는 일 년 길게는 몇 년 아니 십년 이십년 만에 만나서 삼 사일동안 같이 어울리는 것이 우리 동창회 모임입니다. 그 짧은 시간중 반 이상을 골프 치는데 보냅니다. 많은 동문들이 골프가 없으면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골프를 좋아 할까요?

골퍼들은 매 홀 티 박스에 올라 설 때마다 파 하는 것이 목표(goal)입니다. 골프 코스나 기후 등 자연의 여건들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방해는 골퍼가 목표달성에 실패할 확률을 높여줍니다. 티 샷을 하자마자 파에 성공할 희망과 함께 실패에 대한 도전(challenge)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에게 짜릿한 'thrill'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파가 보좌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웨어웨이 중앙을 가르는 250 야드 드라이브를 친후 파 할 희망에 부풀어 그린을 향해서 두 번째 샷을 날렸으나 공이 그만 길이 족파인 그린주위 방카에 빠져 버리면 부푼 희망이 꺼져버리고 벙커에서의 탈출에 실패할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무사히 벙커 샷이 잘 되어서 핀에 가까이 안착하면 다시 즐거워했다가 짧은 퍼팅을 놓치면 속이 뒤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들은 작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골프라는 놀이는 남자들로 하여금 개구쟁이 소년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동기동창처럼 아주 친한 사람들과 내기골프를 칠 때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때문인가 같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남의 불행

보고 즐거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나 골프라는 놀이는 상대방의 misfortune 을 보고 즐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좋은 샷은 나의 불행이요 나쁜 샷은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나, 이것은 단지 놀이(game)에 불과한 것입니다. 옛 친구를 만나서 속과 겉 다름없이 히죽거리고 몇 시간 지내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골프는 아주 competitive 한 game 입니다. 25여 년 동안 저희 의과대학 동기동창 넷은 일 년에 두 번 씩 비행기타고 제 3의 도시에 모여서 4박5일 또는 5박6일 씩 하루 36홀 골프를 칩니다. 한 라운드도 그냥 치는 법이 없이 꼭 내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절대로 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라운드마다 무혈의 혈투가 벌어집니다. 이긴 녀석은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르고 진놈은 패배의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판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에 돌아갈 때쯤에는 승률이 대충 비슷하지만 어떤 해에는 한 친구가 전멸하는 하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친구의 골프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다른 세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이 친구들과 치는 골프가 가장 많은 challenge를 요구하고 따라서 제일 재미있는 골프입니다. 그렇게 죽을힘을 다해서 싸우면서 떠날 때마다 다음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합니다.

골프는 우리들에게 많은 작은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한 인생은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골프를 치는 모양이지요.

사흘 동안 화씨 70도에서 80도사이의 쾌청한 날씨에 잘 다들여지고 경치 좋고 쉽지 않은 골프 코스에서 별탈 없이 골프를 즐기게 해주신 동창회 회장단 특히 Mrs. 안병일(69) 그리고 최원일(70)동문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졸업 55주년을 맞이하면서

노용면(55, 대뉴욕)

우리는 의과대학을 1955년에 졸업했고 금년에 졸업 5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졸업식이 3월 28일 야외에서 거행되었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날씨가 좀 쌀쌀했다. 졸업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셨는데 누군가가 그의 등에 담요를 덮어 드리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그분께서는 만 80세가 되시기 한 달 전이었다. 그것이 엇그제 있었던 일 같은데 세월은 참으로 빠르다. 그리고 보면 그때는 우리들 대부분이 결혼도 안했었지만, 이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세월을 즐기는 나이가 되었다. 그날 우리 동기가 97명 졸업했는데, 지금까지 작고하신 분이 47명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동기가 34명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동기가 16명이다.

6.25 전쟁 때 학교에 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낸 우리들이, 졸업후에도 열심히 일을 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한국과 미국 의학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꽤 많이 있다. 아직도 학회에서 강의를 하는 동기, 심지어는 좋은 책을 써서 출판하는 동기들도 있다. 그러나 동기들 대부분이 이제는 조용히 연장자 생활을 하고 있다.

80대 초반에 있는 우리 동기들 중에는 여러 가지 건강장애를 체험하고 있는 이가 많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기들이 늘 몇몇 있다. 특히 관절장애로 거동을 힘들어 하는 동기들이 많다. 그래도 그들의 정신상태만은 아직도 또릿또릿한 듯하다. 그전에는 아주 소극적이었던 친구가 이전 농담을 털어놓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기도 한다. 어떤 동기는 수십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오랫동안 통화를 한다.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동기들 사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일들이다.

나의 옛 친구들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3월 18(금) Aliso Viego Country Club
오렌지 카운티에 Jack Nicholas가 디자인한 private club이 풀 있는데 그중의 하나.

여자부: 5054 yard rate/slope 69/127
메달리스트: Mrs. 이만택(91), 챔피언: Mrs. 신규호(65), 장타상: Mrs. 송창호, 일등상: Mrs. 임종원, 이등상: Mrs. 양운택

남자부: 5954 yard rate/slope 68.7/124
메달리스트: 서만길(82), card off against 박용현, 챔피언: 김택수(58), 일등상: 고영규(62), 이등상: 윤효윤, 장타상: 이계석

3/19/2010 - Tustin Ranch golf club
Orange county에 있는 public course.
여자부: 5263 yard rate/slope 71.7/132
메달리스트: Mrs. 박일우(89), 챔피언: Mrs. 백승원(60), 일등상: Mrs. 김천일, 이등상: Mrs. 변영석, 장타상: Mrs. 이경화, 근접상: Mrs. 이준식
남자부: 6064야드 rate/slope 70.2/123

메달리스트: 온기철(82), 챔피언: 변영석(61), 일등상: 안극환, 일등상: 조명호, 장타상: 고남규, 근접상: 이경화

3/20/2010 Strawberry farms golf club
Orange county home course.
여자부: 5243 yard rate/slope 70.9/121
메달리스트: Mrs. 이창우(88), 챔피언: Mrs. 정정수, 일등상: Mrs. 신규호, 이등상: Mrs. 조중행

남자부: 5805 yard rate/slope 68.5/126
메달리스트: 최대용, 챔피언: 권정덕(59), 일등상: 김태웅(63), 이등상: 강수상

Grand Prizes (3 day total)
여자 메달리스트: Mrs. 정인용(280)
여자 챔피언: Mrs. 백승원
남자 메달리스트: 서만길(248),
남자 챔피언: 김천일
Champion, 1st and 2nd place score는 Peoria system에 의한 net score입니다.
온기철(71) 보고

2010년 Silver Project 여행 계획

금년 실버 프로젝트로 헝가리 및 발칸반도 4개국 (Slovenia / Croatia / Bosnia / Serbia) 여행, 그리고 북유럽 4개국 (Russia / Finland / Norway / Denmark)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1) Hungary & Balkan Peninsula (Slovenia / Croatia / Bosnia / Serbia) Tour

4월 28일 (수) ~ 5월 8일(토) 10박 11일, 3월 현재 인원이 거의 다 되어서 곧 마감예정입니다.

2) Russia & North Europe (Finland / Norway / Denmark) Tour

8월 28일 (토) ~ 9월 10일(토) 13박 14일, 참가인원 21 커플(42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문들과 즐길 수 있는 여행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행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세아 여행사로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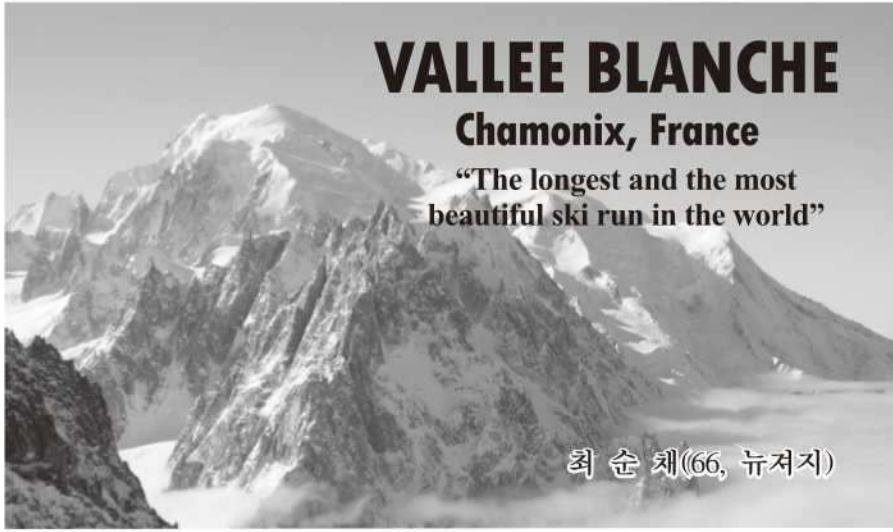
전화: (212) 685-2662, (800) 774-0066

팩스: (212) 684-0032

Email: asiatur@hotmail.com

Silver Project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michaeljoh77@gmail.com

Silver Project Committee 조명호



오른쪽 앞으로 Aiguille du Midi, 뒷쪽으로 Mont Blanc, 왼쪽으로 Vallée Blanche와 Mer de Glace빙하가 있다

유럽의 최고봉 Mont Blanc (15,770ft) 바로 동북쪽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Chamonix는 불란서 동쪽 끝 스위스와 이태리의 경계에 있고 Geneva공항에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인구 만 명 정도의 작은 동네이지만 유럽 최초의 스키리조트이고 1924년 제1회 Winter Olympic을 처음 시작했고 남쪽 이태리와의 Mont Blanc Tunnel로 연결되어있다.

빙하가 파놓은 동서로 기다란 협곡에 위치한 동네는 거의 수직 절벽으로 12,000ft 이상 되는 장엄한 연봉들이 남북 양면으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유럽스키장 중에서도 경치가 가장 장관이다. 기암절벽사이로 곳곳에 달려있는 거대한 빙하 끝의 큰 얼음덩어리들이 언제라도 한순간에 굴러 내려 올것만 같다. 실제로 예전에는 양쪽 산에서 큰 눈사태가 동시에 내려와 온 동네를 뒤덮어 버린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자연조건 때문에 이곳은 산악등반의 메카이고 extreme skiing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동네주위로 크고 작은 스키장들이 여러 개 있고 가장 인기 있는 관광대상으로는 Aiguille du Midi와 Mer de Glace('Sea of ice')빙하가 있지만 스키 타는 사람들에겐 "세계에서 가장 길고 (13마일), 가장 높고(9,205ft vertical) 가장 아름답다"는 Vallée Blanche ('White Valley')스키코스가 유명하다. Aig. du Midi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를 타고 Glacier du Geant, Glacier du Tacul, Mer de Glace빙하 세 개를 타고 내려와서 Chamonix까지 다시 돌아오는 코스이다. 코스가 재미있고 그 경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기 때문에 일년에 수만 명의 스키어와 스노우 보더들이 몰려오는 곳이다. 물론 표지판도 없는 고산지대에서 avalanche, crevasses séracs(집채만 한 얼음덩어리)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가이드가 절대 필요하다.

Chamonix에는 가이드 서비스(Vallée Blanche 가이드서비스 한 사람당 75유로) 회사가 많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회사는 Compagnie des Guides de Chamonix이다.

1821년 설립된 이 회사는 가장 권위 있고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4등급의 가이드가 있는데 정회원은 멤버투표로 일년에 3-4명 정도만 가입이 허락되고 최근까지 만해도 정회원은 Chamonix 출생자라야만 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단 두 번 예외가 있었는데 1924년 제1회 Winter Olympic개최에 큰 공헌을 한 독일인 Roger Frison-Roch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악인이었고 불란서 최고 훈장을 받았던 Gaston Rébuffat 두 명이라고 한다. 가이드 의뢰가 들어오면 heli-skiing등 인기 있는 가이드는 상급 멤버가 먼저 골라가고 나머지 '찌꺼기'는 하급멤버가 순서대로 담당받는다 한다.

Vallée Blanche skiing은 위험물도 즐기고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는 첫째

날씨가 좋아야 된다. 날씨가 맑아도 바람이 세면 케이블카를 탄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밖에 기회가 없다. 다음날 일기예보에 날씨가 좋다면 호텔에서 그룹예약(최소 4명 필요)을 하거나 시내에 있는 스키학교 Ecole de Ski Chamonix 오피스에 전날 오후7시 전에 가서 신청하면 다른 그룹에 끼어준다. 불어를 모르면 영어사용그룹에 넣어 달라고 부탁해야 된다. (그룹예약을 하면 가이드가 케이블카 터미널까지 교통편을 마련해 주지만 혼자인 경우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걸어 가야된다).

Ski pass는 기본패스보다 40유로를 더 주면 Chamonix 주위의 모든 스키장, 관광기차, Aig. Du Midi 케이블카, 스위스의 Verbier, 이태리의 Courmayeur 스키장까지 사용할 수 있는 Mont Blanc unlimited pass를 사는 것이 편하다.

급년 3월 Chamonix 스키여행에서 Vallée Blanche 를 두 번 탈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날은 일기예보와 달리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 시야가 흐렸고(우리 일행 중 영국에서 온 여자가 crevasse에 빠졌으나 다행히 눈이 깊게 쌓여있어서 큰 사고는 면했다) 두 번째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



벼랑위 좁은 Aig. du Midi 능선을 따라 개미 새끼처럼 조그맣게 스키어들이 내려오고 있다

아침 8시 반 Aig. du Midi 터미널에서 가이드 장 루이와 우리 일행이 될 다섯 명과 만났다. Avalanche beacon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밧줄을 맨 안전 벨트를 착용했다.

날씨가 좋기 때문인지 수백 명이 케이블카 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케이블카 하나에 6명밖에 타지 못하기 때문에 Boarding pass(번호표)를 받고 한 시간쯤 기다렸다가 Aig. du Midi로 올라갔다. 중간에서 한번 갈아타고 12,605ft 정상까지 20분 이내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 귀가 막히고 현기증이 나는 사람도 있다.

Aiguille du Midi('Needle of High Noon')은 남과 북 두 개의 큰 바위탑으로 되어있는데 Chamonix에서 바라볼 때 정오가 되면 해가 바로 이 바위탑 뒤에 떠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북쪽타워에 도착해서 바위 속으로 뚫어놓은 통로를 따라 절벽사이로 연결해 놓은 다리를 건너서 남쪽타워로 간다. 곳곳에 전망대를 많이 만들어 놓아 항상 관광객들이 붐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동쪽 멀리 스위스 Zermatt의 Matterhorn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다. 남쪽타워 굴 안에서 나갈 준비를 한다. 밧줄로 서로 연결하고 스키폼은 가이드가 모아서 묶어 가지고 간다. 얼음굴을 지나 출구로 나가면 눈 덮인 광활한 빙하 주위로 알프스 준봉들이 눈이 닿는 데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있다. 그 경치를 즐길 여유도 없이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유명한 Aig. du Midi Ridge (불어로 Arête)를 내려가야 한다. 경사가 아주 급한 폭이 1.5미터정도 되는 좁은 능선, 양쪽으로는 천 길 낭떠러지 벼랑이다. 한손으로는 스키를 들고 한손으로는 밧줄을 붙잡고 옆걸음 또는 뒷걸음으로 한발자국씩 조심조심 내려간다. 고도 때문에 이곳은 항상 바람도 차고 매섭다. 가끔 눈에 살짝 덮인 얼음을 밟고 미끄러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스키를 잡아 댄 수 있는 배낭을 미리 준비했다면 두 손을 다 쓸 수 있어 훨씬 쉬웠겠지만 이미 늦었다. 일년에 수천 명이 내려가기 때문에 해마다 꼭 사고가 난다고 한다. 지금은 북쪽 면에 갈지라도 길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지만 아찔하기는 마찬가지다.

30분쯤 걸려 평지(불어로 'Col 'Saddle')로 내려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밧줄을 풀고 하강준비를 한다.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를 준다. 절대 옆으로 나가지 말고 자기 트랙만 따라 올 것, 절대 자기를 지나 내려가 서지 말 것, 스키 하나가 빠졌을 경우 절대 다른 스키를 벗지 말 것. 눈에 보이는 큰 crevasse는 피해야 하지만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다. 스키를 벗으면 몸무게가 좁은 곳(스키부츠)에 모아져서 더 깊이 빠지기 때문에 crevasse를 덮고 있는 snowbridge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이다. 해마다 7-8명 정도 crevasse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나는데 스노보더들이 많다고 한다. 스노보드를 벗고 걸어 가다가 빠지기 때문에 스노보더들은 줄였다 꿸다하는 풀 두개를 준비해서 평지를 지날 때 사용해야한다.

Vallée Blanche의 snow condition은 일기에 따라 다르므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정상부근은 항상 바람이 세어서 wind packed hard snow, 중간쯤은 대개 deep soft powder, 아래쪽 빙하 위는 눈이 바람에 날려서 울퉁불퉁한 얼음 위를 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옆의 crevasse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50년 안나푸르나 정상정복으로 인류최초로 8000미터 이상의 히말라야 봉우리에 올랐던 불란서 산악인 Louis Lachenal이 1955년 11월 동료 한명과 함께 Vallée Blanche 에서 스키를 타다가 crevasse에 빠져 사망한 사건은 그 당시 큰 뉴스였다. 작가 Victor Hugo가 이곳에 관광을 와서 경험 없는 가이드를 따라 나섰다가 아주 좁고 위험한 snowbridge를 따라 깊은 crevasse를 건너가야만 될 위기를 당해서 혼났던 경험을 후일 자기 부인의 회고록에서 밝혔던 일화도 있다.

Vallée Blanche 를 내려가는 길은 6개 코스가 있다. Chamonix 쪽에서 내려가는 코스 4개와 이태리 쪽에서 내려가는 코스 2개이다. Col du Midi 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Vallée Blanche Classic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쉬운 편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이다. 다만 Séracs du Géant를 지날 때 길이 좁고 경사가 급해서 모굴이 많이 생겨 이 코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Séracs은 빙하가 급경사를 내려오면서 깨져 생긴 집채만 한 큰 얼음덩어리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네모난

치즈 Séracs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을 지나면 바로 밑에 Salle a Manger('dinning room')라는 평평한 빙하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쉬면서 점심 먹을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다. 그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이 가끔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는 서둘러야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날씨가 흐려서 Vallée Blanche Classic 코스를 따라 내려갔으나 두 번째는 날씨가 좋아서 거리는 조금 짧으나 경사가 훨씬 더 급하고 왼쪽으로 Aig. du Plan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Grand Envers 코스를 택했다. 전날 눈이 많이 와서 무릎까지 빠지는 deep powder snow를 4마일 이상 S자를 그리면서 즐길 수 있었다. 일행 중 랭크라는 친구가 powder snow경험이 없는지 7-8번 곤두박질을 하는 바람에 미안하지만 나는 그 사이에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좋았다. 중간에서 잠시 쉬면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계속 하강 드디어 Vallée Blanche 하반부 유럽에서 가장 길다는 빙하 Mer de Glace('Sea of Ice')에 도착한다.



Mer de Glace빙하위를 지나 간다

여름철에 보면 회색과 흰색의 띠가 번갈아 가면서 바다 물결모양처럼 보여서 생긴 이름이다. (빙하가 계속 흘러 내려오면서 여름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모래와 다른 불순물들이 crevasse사이에 쌓여서 회색 띠가 생기고 겨울에는 눈얼음이 쌓여서 흰색 띠가 교대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겨울에 눈에 덮여 있어도 희미하지만 물결모양의 흔적을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눈이 바람에 날려버려서 얼음위에서 스키를 탔지만 두 번째는 눈이 좀 덮여 있어서 훨씬 쉬웠다. 빙하가 끝나는 곳에 왼쪽위로 예전에 지어놓은 관광호텔(지금은 박물관)과 Chamonix에서 올라오는 기차 종점역이 있는 Montanvers가 있다. 30년 전만 해도 빙하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해마다 4미터씩 줄어들어 지금은 Chamonix로 돌아가기 위해 호텔보다 훨씬 아래 능선까지 300ft이상 가파른 언덕을 스키를 들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때도 스키를 댄 수 있는 배낭이 있으면 훨씬 편하다. 힘이 지치거나 눈이 없을 경우 곤돌라를 타고 기차역까지 올라가서 기차를 타고 Chamonix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 능선을 올라가면 작은 휴게소(des Mottets)가 있고 잠깐 쉼 뒤에 숲속 길을 따라 Chamonix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길은 길이 좁고 얼음판이 많아 조심해야 된다. 지그재그 switchback이 많고 턴하기가 어려워서 sideslip을 많이 해야 한다. 30분쯤 내려가서 조그만 스키장(Les Planards)을 만나고 아래로 내려가면 Chamonix로 돌아오게 된다. 아침 출발시각부터 대개 5시간쯤 걸린다.

중급이상의 스키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한번 해볼 만하고, 평생 추억에 남을 만한 스키경험이다. 특히 스키인에게는 성지순례라고 할 만한 Haute Route (불란서 Chamonix에서 스위스 Zermatt까지 65마일을 스키를 타고 중간 산장에 머물면서 가는) Alpine Touring을 해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습코스로 좋을 것이다.

천상의 모임, 신선들의 모임, 제27차 전당대회

삼위일체

그대는 김택수(63)동문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대는 디즈니랜드의 테마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대는 나두섭(73)동문의 사진 중에 제일 걸작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리고 그대는 디즈니랜드 드라이브 웨이의 양쪽 길가에 심어진 꽃들이, 또 금년 방콕의 테이블 플라워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는가.

Paradise(bird)라는 꽃은 그 구조가 위로 옆으로 위로, 그 색깔이 보라, 분홍, 노랑으로 그 모양이 마치 갓 난 제비가 먹이를 받아먹으려고 하늘을 향해 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



CME나 non-CME에 참석한 학생들의 표정을 보아라. 햇병아리들이 셋노란 입을 벌리고 풀벌레를 갈구하는 귀여운 모습들, 이순이 넘었어도 초등학생 처럼 순종하고 경청하는 우리 서울의대 선남선녀들!

골프장에서 tee를 노려보는 노련한 골퍼들, 장기대회에서 누가 누가 잘하나 앞을 다투는 천진난만한 모습들, 지천명의 나이도 아랑곳없이 승부욕으로 뿔뿔 뭉친 우리 서울의대 악동 약녀들!

과연, 천하제일 서울의대 동문들은 대한민국의 국보들이어라.

가히, 백전백승 서울의대 동문들은 전 세계의 동량들이어라.

Paradise 꽃처럼 정 반 함으로 연륜을 쌓아오며 Paradise 꽃처럼 지 덕 체를 함께 길러라.

Paradise 꽃처럼 정상을 지향하는 동문들이 그동안 같고 닳은 실력을 경주하는 연례 총 결산대회에 참가해서 보고들은 단면들을, 불행히도 요번 천국열차를 못 탄 동문들을 위해서 재조명 해보기로 하자.

금년에는 이성춘(70)회장의 세심한 배려로 남가주의 낙원, 디즈니랜드 한복판에 위치한 Paradise Pier(천국으로 가는 부두) 호텔에서, 덩지도 춥지도, 비바람도 없는 3월 17일부터 3박4일간 200명의 신사숙녀들이, 낮에는 각자 기호와 적성에 따라 헤쳐 졌다가 밤이면 모두가 한 식구로 뭉쳐져서, 그야말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갔다.

천국으로 가는 교두보, Paradise Pier는 아담하고 조촐한 호텔이었으나, 건축양식, 실내구도, 타일이나 벽지 색깔 등이 아주 고상하면서도 발랄한 예쁜장한(petit) 호텔이었는데, 서비스도 수준급에다가 파킹도 무료여서 편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었다.

술은 왜 그리 흥한지, 전 일정이 host bar로 진행됐으며 팁을 주는 번거로움도 피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3박4일간 마시고 간 술병이 포도주 72병이었는데 기호와 적성에 따라 금년도 전당대회의 술 조달책으로 지명된 이원택(71)동문이 'Trader Jois'에서 김강대면서 그 무거운 술병들을 날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

지(?) 그리 하여 이동문은 원수 갚는다고 5병을 혼자 다 마셔 버렸으니, Mrs. 이성춘 총감독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날씨는 어찌 그리 좋은지, 매일같이 70도 안팎에다가, 근처에서 불어오는 아들아들한 바닷바람 하에, 심심한 그 린에, 스윙 좋고, 퍼팅 좋고 또 some도 좋았나니, 요번기회에 자기 핸디를 갱신하지 못한 동문들은 어디 가서 서울의대 나왔다는 말은 삼가길 바란다.

Paradise 꽃의 색깔같이, 요번 모임을 보라(학술: 知) 분홍(여흥: 德) 노랑(골프: 體),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기호와 적성에 따라, 각각 71년도 3인방 조세진 동문, 이원택 동문, 그리고 온기철 동문이 분담해서 취재하기로 했다.

우리가 밤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할 일이 태산 같다는 것은 또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가.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나니 아쉬운 얼굴들, 어디 천국이 따로 있겠는가. 환상의 도시 디즈니랜드에서 견우직녀가 엮어본 3박4일의 신선놀음을 천국으로 가는 교두보(오작교) Paradise Pier를 통해 들어가 보자

Paradise 꽃은 일 년 내내 피지만 3월 달에 제일 알차고 싱싱하다.

지(知): 학술강좌

이석규(70)대회장의 부탁을 받고 2010년 Annual Convention Scientific Session 참관기를 써보기로 했다.

수훈감은 잘 훈련되고 또 향학열로 불타는 모든 참가자들 이었다. 그 바쁘고도 힘든 스케줄(의학연수, 골프로 뭉만들기, 각테일과 화려한 디너,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여흥)을 여유 있게 소화하고 새벽 5시30분부터 출석한 회원들, 한국에서 오셔서 술선수범하신 52년도 강신호 전동창회장님, 나의 동기생으로 어느새 대한의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덕(71)동문, 정정수(62) 전회장님, 58년도 동기생 신상균, 김백년, 김기태 선배님들, 그리고 70이 넘는 연세에 아직도 John's Hopkins Hospital에 full time으로 근무하시는 이재승(61) 전회장님도 눈에 띄었다.



차석은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execution한 이석규 선배, 그를 assist하고 trans keeper 로 수고한 박진주(71)동기생, fair 하고 firm한 moderation으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집행한 세분의 moderator, 이흥표(64), 박성민(64)과 이석규(70) 선배들 이시다.

Last but not least, 동문들의 의학상식을 높여준 연사님들, 그중에서도 동문의 영식인 Michael Kim, Mt. Sainai 부교수, 개업 중에도 혁신적인 연구를 한 William Han(75)이 동문들의 주목을 끌었다. 강의료를 못 드리고 감사장 하나로 때운 동창회의 재정 상태를

원망할 뿐이다. 특히 Dr. Michael Kim의 발제 때 맨 앞줄에 앉으신 부모님의 흡족하심을 보면서 저희들이 심금이 울었다.

Honorable mention은 김혜경 사무장을 정점으로 한 front office, volunteer staff에게 돌아가야 하겠다.



Opening presentation은 모교 임정기(75)학장님께서 radiologist 답게 영상자료를 동원하여 1899년 제중병원으로부터 시작한 서울의대의 역사적 당위성과 2017년에 세계 랭킹 10위를 목표로 한 Vision 2017을 보여주셨다. 학장님을 일찍 알았으면 LA 한인여의사 회원들과 존경하는 동업자 세브란스 동문들을 초청했을 텐데 두고두고 한이 된다.

학장님! Vision 2017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진료, 연구, 교육, 봉사를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후배들을 배출해 주세요. 세계 랭킹, SCI에 등재된 논문 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 주지는 아니하니까요. Rat race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봉사하는 의사를 가르치시겠다는 초지를 일관하십시오.

학장님을 수행하신 오병희(71)동문의 고혈압 강의는 한국 현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culturally competent 한 발제로서 thought provoking 하는 event 이었다.

Pain management를 강의한 조형기(92)동문의 발제는 cost-effective, sound and safe한 고견들이었습니다. TV Ad에서 받은 파배기 편견을 말끔히 씻었다.

존경하는 동업자 강수상(53)선배님의 강의는 Narrow minded geneticist에서 philosophical introspect 경지에 도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침술을 강의해 주신 최정호(67)동문의 강의는 acupuncture를 이해하고 편견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날 강의로는 pediatric infectious disease의 전문가인 김광식(71)동문이 있었는데 주제는 mechanism of brain-blood-barrier penetrance 이었습니다. 드디어 E-coli 도 genetic image 로 해부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1978년 Drs. Nathan & Smith 가 S-V-40 virus genome sequence로 노벨상을 탔으니까 clinician의 주목을 받기까지 30년이나 걸린 셈이지요.

한혜원(61)박사는 강의에서 Australia Antigen 발견 배후에 숨은 episode를 전해주셨다.

박정일(67)동문의 강의는 의사로서 ethic background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 이었다.

김유식(71)동문의 강의는 When to refer to PMR physicians"를 일깨워 주었고 acupuncture를 이해하는 통찰력을 주셨다. Kudos! you wrought PMR one notch higher?

마지막 날 강의는 thematic 한 구성이 아니고 individually important 또는 interesting 한 토막을 다루었다.

인정길(70)동문의 영식인 Leopola Yim, MD는 academic하게는 Crimson이고 foot ball season에는 Buckeye이다.

동영상 vocal cord in action을 증명했고, voice therapist와 speech therapist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다.

조세진(71)동문이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Gender verification officer(속칭 병아리 감별사)로 근무한 경험과 역사 속에 묻혔던 비사를 소개했다.

김용(86)동문은 SGPY/SGOT 세대와 ALT 세대를 잘 묶어 주었다.

서인석(73)동문의 영애 Christina J Seo, MD의 Colorectal Cancer Screening 은 대부분이 50이 넘는 동창들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였다. 동문님들! 주치의의 충고만 듣지만 말고 "Just do it"

Dr. 이도은의 Diabetes Management는 compliance를 높이고 aggressin approach model를 보여주었다.

김영진(68)동문의 자제인 Dr. 김두진은 Stroke care에서 ordinance basel treatment choice를 잘 표시해 주었다.

간단히 이번 심포지엄의 특징을 나열하면,

1. Disclosure / Conflict of interest statement 를 채택해서 더욱 투명하고 양심적인 학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

2. 20% 정도의 발제는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연사들, 영어가 편리한 연사들이었다. 청중들의 반응을 survey해서 principle을 정했으면 좋겠다. 의견은 차기 CME chair를 맡게 된 본인(조세진 71, email: sechincho@compuserre.com)한테 연락해 주기 바란다.

3. 신세대 연사가 많아서 data base / evidence based management 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

4. 2세대의 참여가 돋보였는데 그들이 active하게 (not by parent's version) participate 할 수 있는 forum을 만들어 주면 동문들도 up to date한 정보를 접하고 그들도 같은 배경을 가진 그룹과 교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더욱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동문들이 더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덕(德): 여흥

자고로 덕이란 올바른 인격적 능력 일진데, 사람이 덕을 쌓아 가려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니, 그 근엄하신 공자님께서도 오락과 가무를 군자가 되기 위한 최상의 도(道)라고 간파하신바 있다.



레라고 하였는가. 그 누가 서울의대 출신들을 쯤쟁이라고 불렀는가. 그대가 요번 27차 연례친목대회에 참석해 보았으면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놀기도 잘 논다고 저절로 감탄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3월 18일(목)날 동문들 장기자랑 때는 우리 서울의대의 '걸물(뛰어난 물건)' 차인영(82)동문이 재치 있고 박력 있는 사회로 수많은 싸모님들의 심금



을 풀어주었는데 이 친구 구랏발이 어찌나 센지, non-CME의 'laser skin care' 강의 시간에는 모두들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설 줄 모르고 있었다.

이날은 전국에서 몰려든 한다하는 한량들과 난다하는 기생들의 각축전을 벌였는데, 무대에 선 동문들로는 이종국(58), 권정덕(64), 문광재(68) 등이 있었으나, 실력로나 끼로나 우리의 기쁨조들한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그나마 들어줄만했던 것은 우리의 '구수한 남자' 이영균(67)동문의 군밤타령 정도가 있었다고 기억한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경쾌한 음악을 온몸으로 연주한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있었는데 그는 고 박성유(62)동문의 영식이다. 이 친구는 다음다음날 3월 20(토)일, 그랜드 방콕에서도 열광적인 연주를 해 주었는데,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바이올린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통에 그러다가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거나 앓을까 마음이 조마조마 했었다.

이어서 뉴저지에서 온 백승원(79)동문 부부의 볼룸댄스 시범이 있었는데, 그래도 영계 축에 속하는 386세대라 그런지 아주 신선한 맛이 있었다. 특히 리드를 해나간 Mrs. 백승원은 군계 일확으로 가히 우리의 '우아한 여자'로 불릴 만 했다.



또한 non-CME 시간에 Line dance를 지도했던 춤선생, Mrs. Vivian Kwak(곽승용 71 동문의 어부인)이 리드한 Waltz line dance도 일품이었는데, 열심히 따라한 학생들도 학생들 있었지만 Mrs. 광이야 말로 프로의 경지에 도달한 무용수로서, 서울의대 '최고의 멋있는 여자'로 선정해도 별 이의가 없으리라 본다.

다음에는 78년도 졸업 권오기 부부의 duet이 있었는데 이야말로 (부창부수)의 전형적인 예로, 우리 모두의 '삼삼한 여자'는 단연 Mrs. 권이 차지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날 밤의 Grand Dress는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몰래 살짝살짝 스텝을 밟으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색)을 쓰던 '끼가 자르르르 흐르는 여자' Mrs. 이계석(73)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여인천하-

사실은 기자가 취재부탁을 받았을 때 그 대상을 학술과 오락으로 하지 말고, '남과 여'의 성의 대결로 해



볼까하고 조세진 동문은 남자 part를 맡고 불초 이원택은 여자 part를 맡기로 했는데, 내친김에 천하제일 서울의대를 올라타고 있는 막강한 '서울의대 여성군단'의 면모를 들춰보기로 하자.

옛날에는 "지식팔자의 반은 부모 팔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남자 팔자의 반은 여자 팔자"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역대 회장들도 마찬가지지만, 별 불일이었던 이성춘(70)동문이 회장까지 해 먹게 된 것은 다 그 배후에 있는 Mrs. 이성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rs. 이성춘은 한마디로 '오지랖이 넓은 여자'이다. 남자들도 엄두내기 힘든 이번 행사를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accentuation을 해 나갔는데, 겉으로는 통이 큰 것 같지만 속으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그 편린을 적어보자.

첫날 리셉션 때는 통상 small stick dinner 라고 해서 카테일을 들고 다니면서 hors d'oeuvre 몇 조각 집어 먹는 것으로 때우는데, 3월 17일(수)일에는 70명분을 시키려다가 늙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먹겠는가 하고 50명분만 주문을 했다. 예그 룰에다가 닭튀김도 나와서 먹을 만해서 그랬는지 또는 예의상 먹어줘서 그랬는지 막판에 가니까 음식이 동이 나서, 당황한 마담 Lee 께서 추가로 더 주문하는 통에 snack으로 나간 돈이 점심 디너 값 못 지않았는데 나중에 나온 추가분은 거의 다 남아서 돌아갔다.

그날은 곤해서 그냥 잠에 떨어졌으나, 다음날 새벽, 닭날개하고 닭다리들이 온몸을 칭칭 감아대는 악몽에 시달리다 잠이 깨어보니 오전 세시라나. 그 전날 돈은 돈대로 쓰고 실속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니 약이 올라서 잠이 안 오더라는 것이다.

남자들이야 뭣도 모르고 다 먹고 떠돌고 히히대지만,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서울의대 현모양처들의 애간장 끓이는 내조의 힘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기타 기라성 같은 남자 골퍼들을 제치고 말 많고 탈 많은 골프 일정을 거뜬히 소화시킨 '화끈한 여자' Mrs. 안병일(69), 전 일정을 리셉션 데스크에 붙어 앉아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은 '알뜰부인' 그러나 밤무대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부뚜막(무대)에 올라가는 '진짜 내숭' Mrs. 고용규(73), non CME의 '가벼운 여행'을 하기 위해 미주알고주알(심지어는 그 밑에다가 돈을 숨기라고) 고생이까지 다 까 보였던 우리의 '살뜰부인' Mrs. 최준희(64), 하와이언 댄스로 못 사내들을 살살 녹여준 우리의 '은근짜' Mrs. 김홍서(69), 그리고 흑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당할까봐 감히 실명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동문 사모님 중에 '젓소부인'도 한사람 있었다.

또한 시종일관 가창과 무용으로 무대를 주름잡은 '제일 아한여자' Mrs. 김성환(71), 서울에 가서 국민가수 나



훈아를 잡아오려다가, 개보다 훨씬 귀여운 밤무대의 악동 '너훈아'를 물어온 '요염한 여자' Mrs. 이희영(71), 그리고 쌍꺼풀 수술 3일 만에 선글라스를 쓰고 하와이 춤의 back chorus를 잡아준 '못 말리는 여자' Mrs. 이원택(71) 등등 겉으로 표가 났던 사모님들만 열거했는데, 겉으로는 요조숙녀로 암전을 빼지만 속으로는 기화요녀로 호박씨 까는 '살살이'들은 내년 연례 인민대회때 모두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

마지막 날(3월 20일 토요일), Annual Gala는 '환상의 여인' Kelly Choi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무대장치, 조명, 음향, 영상, 마이크 모두 끝내주는 그야말로 라스베이거스 쇼를 능가하는 하와이언 나잇이 밤 11시까지 지속되었다.

팔등신의 미녀 Kelly와 바이올린의 신동 유진 박이 마음껏 젊음을 불살랐으며, 하와이 군도 8개 섬의 원주민(?) 중에서 뽑혀온 동남동녀들이 갖은 모양으로 전통의상을 자랑했는데 앞자리도 나와 야성미 넘치는 폴리네시아 처녀들의 요동치는 배꼽춤을 보면서 침을 제일 많이 흘린 남자는 단연 71년도 졸업 장문석 동문이었다.

이날 과반수 이상이 하와이언 전통의상을 입고 참석했는데, 동문들중 몇몇은 야자수로 만든 훈도시만 차고 나와 뱀새끼나 풍겼으나 그중의 장원감은 '여장미남' 최준희(64)동문이었다.

그리고 하와이언 댄서들의 엉덩이춤을 흥내 내는 시합에서 엉덩이 돌리기 선수는 66년도 윤락승 동문, 비틀기 선수는 70년도 최원일 동문, 흔들기 선수는 71년도 김성환 동문이 제격이었는데 과연 잠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모님들에게 물어볼 일이다.

좌우간 이날의 진수는 우리 예쁜 사모님들이 온갖 꽃치장을 하고 그동안 빼 빠지게(아직 허리 부러진 동문이 없는 것이 다행) 봉사해온 서울의대 남정네들을 위해 마련한 "to you, sweet heart" 공연이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하와이언 댄스로서 무더기 연무를 뿜어내는 통에 그야말로 (잠시나마) 천상의 여인들이 하강한 것 같았다.

마지막 피날레는 한국 밤무대의 '악동' 너훈아가 장식했는데, 진짜 나훈아보다 훨씬 젊고, 훨씬 박력이 있고, 훨씬 발랄까진데다가, 훨씬 더 징그러웠기 때문에 '오빠!'를 외쳐대던 어떤 사모님은 오줌을 다 찌름했다고 한다.

그리고 차기회장(10~11)에는 71년도 정인용 동문이 선출되었는데 정동문이 선정한 내년도 오락 및 학술대회



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또 하나의 천상의 도시 콜로라도 덴버에서 하기로 했다니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낙혜(落惠): Epilogue

1. 요번 학술대회 등록비 \$315를 너무 비싸다고 불평 꽤나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1인당 1가구당 이며 CME category I 12 unit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것이 아니고 본전이 아까우면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골고루 다 찾아 먹으면 된다.

2. 참석자의 반수 이상이 은퇴를 한 상태에서 CME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학술대회이고 또 IRS에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계속 남으려면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3. 학술대회의 모양새가 너무 유흥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여흥도 해를 거듭해 갈수록 경쟁적으로 빠가번쩍해지는 것 같아 앞으로 회장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두당 얼마씩이라고 씬씬이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긴 쇼 보려고 동창회에 참석하는 동문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4. 금년도 CME, non CME의 topic중에 외모를 치장하는 cosmetics에 관한 강좌가 3개나 끼어 있었으나 우리의 내면세계를 성장하는 정신의학 강좌가 한건도 없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이성춘 회장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 모셔야 겠다고 생각했다.

5. 기자 개인적으로는 매년 컨벤션에 참석하고 나서 CME, non CME의 강의 내용을 압축해서 따로 책자를 만들던지 아니면 시계탑의 부록으로 편집해서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에게도 골고루 배부하고 또 본교도서관에 보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동문들이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본인이 어깨너머로 들어본 몇몇 강의들은 그 강의내용들이 혼자 듣기에는 너무 가까워서 해본 말이다.

6. 금년도 장수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우선 첫날 배포한 기념품중 시계는 서울대학병원 LA지소에서, 도자기 mug set는 본국동창회(회장 박용현 68)에서 기증한 것이고 기타 강신호 초대회장(52) 등 많은 독지가들이 도내이손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도내이선 명단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제27차 오락 및 학술대회의 대회를 맡아 제일 수고가 많았던 이석규(70)동문에게 한마디 부탁했더니, 간단히 "감사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하기에 역시 대회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만 출랑 출랑대던 기자의 입도 다물기로 했다.

이원택(71), 조세진(71), 윤기철(71)



정신 화학



이원택(기, 남가주)

저자가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의과대학을 가려면 생물이나 화학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자는 원래 문과계통에는 좀 소질이 있었으나 이과계통은 영 꾀병이었다. 생물은 그래도 호르몬 얘기도 나오고 유전이나 생태학 등등 흥미가 있었으나, 화학은 정말로 무미건조하고 몇대 가리 없는 과목이었다. 아마도 생물과 화학이 둘 다 필수과목이었다면 저자는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들어와 보니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을 하지 않으면 진학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생리학도 결국은 화학으로 끝장이 나고, 약리학은 그야말로 화학당어린 것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화학하기 지겨워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책을 쓰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화학인데 그동안 인생살이 하느라고 좀 약해진 저자는 화학을 생물 비슷하게 써보는 기지를 발동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제1과 신경전달물질

정신생리학에서 어떤 자극이 한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은 DNA에서 짝지어낸 단백질의 일종인 신경전달물질이 배에서 쏟아져 나와 부두의 선착장에 있는 수용기에 마치 암수의 생식기가 밀착하듯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신경전달 물질들은 뼈까번쩍한 그 이름에 비해 흔해빠진 아주 싸구려 아미노산이 서너 번 둔갑을 해서 만들어진 간단한 물질들이다. (도표 synopsis 101-106====삽입금지로 변경됨) 그리고 그 숫자도 도파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노르 에 피 네 프 린(norepinephrine),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글루타민산(glutamate) 등등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20여 개에 불과하고 내장이나 근육 등 우리 체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들은 어떤 장기 또 어떤 부위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는데, 어떤 놈은 다음 세포를 흥분시키고 어떤 놈들은 다음 세포를 억제시키기도 하며, 일단 임무가 끝나면 다음 세포의 소포(vesicle)에 저장되었다가 재활용되거나 또는 자기가 나온 세포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수용(reuptake)되거나 그냥 접합점(synapse) 내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효소들에 의해 분해되기도 한다.

지난 번에 신경전달물질(남자)은 배수용체(여자)는 향구라고 해서 육계나 연어 먹었는데, 신경전달 물질이 도약을 할 때 즉, 남자가 바람을 필 때, 그 여자가 꼭 붙잡아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처한테 다시 돌아가거나 향구에서 비실대다가 창녀들한테 낚아채이는 수도 있다고 하면, 아마도 내면허증을 박탈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신경전달물질의 특성은 모든 약리학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추체외로(extrapyramidal tract)의 병변으로 dopamine 결핍 때문에 오는 파킨슨씨 병에는 dopamine 생산에 필요한 L-dopa를 다량으로 투입하고, 변연계(limbic system)에서 너무 dopamine을 많이 생산해서 생기는 정신분열병에는 dopamine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미립자(항정신증약물)들을 투입해서 D-2수용기를 봉쇄해 버리며, serotonin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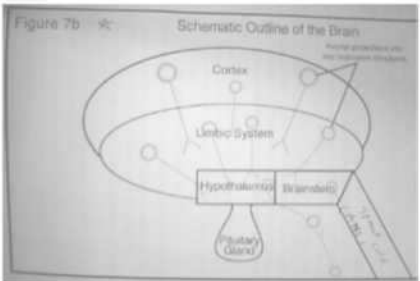
norepinephrine같은 모노아민(monoamine; 한 개의 아민기로 된 분자)의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대형 우울증에는, 모노아민을 분해시키는 효소(monoamine oxidase, MAO; 모노아민산화효소)를 억제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선택적으로 serotonin이 재 수용되는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즉 배수진을 침으로써, serotonin이 다음 세포로 전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흔히 말하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와 같이 인간들이 벌의벌 꿈수를 다 써서 간첩을 투입하고 게릴라전에다가 방과제를 막고 아군을 가장해서 수용구를 속이는 치사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만든 psychotropic(정신작용제) 약물들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나니, 이와 같이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몇몇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정신약리학(psychopharmacology)에서 다루기로 하자.

제2과 호르몬 이야기

제1절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자는 하도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때만 해도 가보(家寶)로 치던 의학대학과사전의 호르몬에 관한 책장들에 적지 않은 손때를 묻혔던 기억이 있다(아마도 아버님이 보시고 이놈이 그래도 사내 구실을 하려나 보다 하고 대견해 하셨을 것이다).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옛날 중국 사람들은 뇌란 호르몬(정액) 덩어리로서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쳐주는 보양술은 방사 중에 사정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정액 속에는 남성호르몬이 극소량 들어 있고 남성호르몬은 성호르몬의 극히 일부이고 성호르몬은 스테로이드(steroid)호르몬의 일부이며 steroid 호르몬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고 자율신경계는 뇌하수체를 통해 변연계로, 변연계는 신경다발을 통해 대뇌피질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호르몬작용의 총사령탑이란 말은 대충 맞는 말이다(그림). 어떤 이는 이와 같은 3천년 전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발견한 별 불일이 없는 학설을 가지고 노벨상까지 탄 적이 있다.



그러면 호르몬이란 무엇을 하는 놈들인가(?) 호르몬도 신경전달물질과 마찬가지로 수용기(receptor)에 달라붙어서 세포가 하는 일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때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호르몬은 세포 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백질에 영향을 주고, steroid 호르몬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생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제2절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

그렇다면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건 자체로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겹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만 호르몬은 혈액 속에 포함되어 뇌세포에서부터 발

세포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고,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접합점(synapse; 포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에서만 만들어지나 호르몬은 기타 다른 장기의 체세포에서도 만들어진다라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신경전달물질은 국소에서 단기적으로 작용하지만 호르몬은 전신에서 장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신경전달물질이 날씨가 흐르면 호르몬은 기후이고 전자는 무대에 선 가수, 후자는 무대 뒤의 악단이나 분위기를 잡아주는 백코러스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도표에서 보듯이 내분비 세계의 중간 보스는 시상하부(hypothalamus)인데, 이놈은 대뇌피질이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을 변연계에서 감정을 추가해서 이리저리 대처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 밑에 있는 뇌하수체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뇌하수체는 공사관에서 심장 비슷한 놈으로, 시상하부에서 전달된 명령을 그 밑에 있는 뿔마니들(peripheral gland; 말초 내분비샘)에게 하달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제3절 호르몬의 역할

뇌하수체는 후엽과 전엽이 있는데, 후엽은 그냥 뇌의 일부처럼 생겨가지고 동물의 기본인 출산과 젖을 짜낼 때 필요한 옥시토신(oxytocin)이나 바소프레신(vasopressin)을 분비하고, 전엽은 세밀한 망사처럼 생긴 실핏줄을 통해 표적장기(target organ)에서 성장, 신진대사, 생식, 위기대처 등에 필요한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하는 자극 호르몬(stimulating hormone)을 분비한다. 예를 들면 성장호르몬 촉진제, 갑상선자극 호르몬, 난포자극 호르몬, 젖샘자극 호르몬(prolactin), 난소황체자극 호르몬[luteotropin; progesterone(황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킴],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촉진제(corticotropin), 성선자극 호르몬(gonadotropin)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정신과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부신피질 호르몬(adrenal corticosteroid) 들로서, 이는 광물성피질 호르몬(mineralocorticoid)과 당성피질 호르몬(glucocorticoid)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나트륨(Na)과 칼륨(K)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신체적) 만성질환이나 위급할 때 구세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후자는 모든 힘의 원천인 포도당의 제조를 촉진시켜서(정신적) 전쟁상태에 대비하게 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전쟁터에서 이와 같은 목숨을 건 선봉장 역할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바 이 당성피질 호르몬(glucocorticoid)의 수치가 올라가면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빠지기 마련인데 이 만하면 왜 그들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가능하다.

제4절 사회적 호르몬-사랑의 묘약

그 동안 뒤에 가려 잘 안보이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서, 기껏해야 산부인과 친구들이 지들 휴가가기 바빠서 태아를 빨리 빼어낼 때(조기분만) 사 용하던, oxytocin이나 vasopressin같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핵 분해 물질(neuropeptide)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매정한 산부인과 선상님 들은 당장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면 된다는 이기적인 경향이 강한데 비해 인정많은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호르몬 기관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대뇌 몸통에 붙어있는 뇌하수체 후엽의 분연의 임무를 되찾아 주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즉 oxytocin은 다 알다시피 출산이나 수유같은 찐한 모성애의 분신이고

vasopressin은 추진력과 책임감을 관장하는 부성애의 대변자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들을 사회적 신경전달물질(social neuro transmitter)라고 한다.

인간생태학에서 보듯이 항상 먹을 것을 찾아 헤메던 유목민들은 복수결혼제(polygamy)를 채택했으나, 오곡백화가 무르익는 평야에 정착했던 농경민들은 단수결혼제(monogamy)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실은 들쥐와 가장 비슷한 사회 생활을 하는 인간들이라고 해야 하지만) 인간과 가장 비슷한 사회생활을 하는 들쥐들을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평야에서는 들쥐들은 가족들이 서로 흠어지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있으나 산골짜기에 사는 들쥐들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다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평야 들쥐들의 편도나 측좌핵(nucleus accumbens)에 산골쥐보다 oxytocin이나 vasopressin의 수용체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전자 조작으로 산골쥐들의 vasopressin 표출력을 강화시켜주면 이놈들이 바람을 안 피고 한 마리의 암컷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잡자리에서 냉랭한 부인들한테는 콧구멍으로 oxytocin을 불어 넣어주면 찐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조관념이 희박한 바람둥이 남편한테는 vasopressin을 뿌려주면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된다는, 가정 화목, 나가서는 세계평화 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지않나 한다.

그러나 정신과에서는 세계평화에 앞서 사회적 집착력의 결핍으로 오는 자폐증, 사회공포증, 정신분열병 등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한데, 실제로 oxytocin을 코를 통해 투입해 보니까 자폐증 환자의 사회적 인지력이 올라가고 사회공포증에서도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보고가 있다.

도표: <내분비 계통 조감도>
전방전두엽
— 송과선, 변연계
시상하부
↓
뇌하수체
후엽: oxytocin-모성애의 분신 (사회적호르몬) vasopressin-
부성애의 대변자
전엽: 각종 자극 호르몬
갑상선, 부갑상선, 흉선
부신피질: 광물성 피질 호르몬:
무기질 대사-질병퇴치
당성 피질 호르몬: 포도당
대사-스트레스 유발
성선 (난소, 고환)
체장

제5절 되먹이기 장치

저자가 병원 레지던트로 일하던 1970년도 말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Dr. Carol의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우울증으로 입원한 정신과 환자 모두에게 덱사메타손 억제 시험(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DST)을 시행했던 기억이 있다. 원래 이 DST라는 것은 Cushing's disease (부신피질 기능항진증: 부신피질의 종양이나 비후로 생기는 병)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약효가 오래가는 인조 당성피질 호르몬인 dexamethasone (Decadron) 1 mg 을 저녁 11시에 투여시킨 후, 그 다음날 8 am, 4 pm, 그리고 11 pm에 혈중 cortisol 수치를 측정해서, 5 mg/dL 이상이면 양성반응 즉 부신피질의 기능이 항진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내분비 기관의 작용은 철저한 되먹이기 장치(feedback) 원리에 의해서 실행되는데, 외부에서 투입된 임여 코티솔(cortisol) 때문에(다음면에 계속)

나의 아버지 흥남파 이야기

난파 탄생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홍정임(박호현 58, 펜실베이니아)



흥남파는 식민지 근대를 살았던 서양 음악가로서 우리나라 '최초'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진 음악가이기도 하다. 작곡가로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평론

가로서, 교향악단 지휘자로서, 방송음악인으로서, 음악전문지 발행인으로서이다. 난파 홍영후는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 흥준을 따라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고, 서울 정동에 있는 의인주택 경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난파의 집 앞에는 이화학당이 있었고, 도 옆집에는 영친왕 이은공이 살고 있었다. 어린 난파는 근처의 정동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의 찬송가를 통해서 처음으로 서양음악에 접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뒷날 그의 일생을 음악에 바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3살 때 YMCA 중학부에 입학하면서 20전짜리 장난감 악기와 숫자보를 통해 혼자 힘으로 도레미 법을 터득했고, 찬송가와 숫자보를 비교해가면서 악보 읽는 법을 깨우쳤다.

그러나 난파가 서양음악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5살 때 '정약전습소'에 입학하여 김인식 선생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였다. 당시 유일의 바이올린 선생이던 김인식 역시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익힌 분이어서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배운지 1년 후에는 제자인 난파가 스승을 앞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해말 세브란스의전 강당에서 열린 성탄음악회에서 최초의 바이올린 독주를 하기도 했다. 이로 말미암아 일약 유명해진 그는 다음해부터 1년에 30회 이상 순회 연주를 했으며 그 후 정식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하게 되었다.

한편, 엄격한 성격을 가진 그의 아버지는 난파가 '양갱쟁이'를 하고 다니는 것이 몹시 못마땅 하였다. 당시 난파의 아버지는 한국 개신교 초창기의 선구자이며 30년 후에 연세대학의 설립자가 된 언더우드씨의 한국말 어학선생이었으므로, 개화기에 급속도

로 변해가는 시대의 물결을 누구보다 일찍 탄 사람이었다. 그는 자식들을 신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싶은 의욕이 강했었다. 큰아들 석후(난파의 친형)는 제중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한국 의사면회 제6번을 수여 받았으며 뒤이어 세브란스 의전으로 편입학하여 세브란스에서도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 후 미국에 가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세브란스 의전 최초의 한국인교수가 되었고, 이비인후과 과장이었다. 그는 작은 아들인 난파도 의사를 만들고 싶었다. 17세의 난파는 연희전문 문학과 제1회에 입학, 그 다음해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세브란스 의전을 전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릴 수가 없는 난파는 그 후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최고수준의 음악교육을 위해 독일하게 되었고, 일본 유일의 국립학교인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한국 사람으로는 두 번째 입학생이 되었다. 그가 예과를 마칠 무렵이었다. 때마침 일본에서도 기미 독립만세 운동이 터지게 되었고, 난파도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평소에 아끼던 바이올린을 전당담혀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내었고, 그 관계로 본과 진학을 거부당하는 구실이 되었다. 부득이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매일신보의 기자로 활동하는가 하면, 소설 창작과 세계명작 번역 등에 몰두하면서 문학에 뜻을 두기도 했다. 창작집으로 여러 권 나왔는데 그 첫째권이 <처녀혼>이었고, 그 서두에 '애수'라는 멜로디를 부쳐 내놓은 것이 후에 유명한 가곡 <봉선화>가 되었다. 봉선화는 나라 잃은 겨레의 설음과 한을 애절하게 표현한 곡으로 겨레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고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하였다. 소프라노 김천애가 일본에서 <봉선화>를 불렀을 때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의 슬픔을 함께 호소하였고, 그분이 입었던 흰옷이 희색이 되도록 만져주었다고 한다. 한편 <봉선화>는 한국 최초의 반주곡으로서 창가시대에서 반주시대

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곡이라는 점에서 음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무렵 첫 중편 <허영>을 매일신보에 연재하므로 서 소설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는데, 1921년부터 1923년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0편 이상의 중, 단편을 내놓았으며 이만한 발표량은 같은 연대의 김동인이나 염상섭의 작품량과 맞서는 것으로 그의 문학에 대한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음악에만 천재적인 것이 아니라 문학에도 천재적인 소질을 다분히 갖추고 있었다. 한번은 친구 변영로 시인이 술좌석에서 빈정거렸다. "너는 건방지게 두 가지씩 한다고 그러느냐.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이지..." 그날 밤 집에 가서 절반쯤 쓰고 있던 소설을 불살라 버리고 그것으로 문학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동경으로 돌아간 난파는 때마침 동경에서 열린 '폴란드 고아구제 대음악회'에 독주자로 뽑혀 3천여 관객 앞에서 독주다운 독주를 함으로써 일생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을 맛보기도 하였다. 1927년 동경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듬해 동경신교향악단(NHK의 전신)의 제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일본유학을 마치게 되었다. 귀국하면서 더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쳐나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서양음악을 통해 조선을 계몽시키려는 계몽의 글을 많이 쓰게 되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리 조선은 깨는 때울시다.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때울시다. 할 때울시다. 남과 같이 더 낮게 할 것이 울시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나가야 합니다. 비노니 우리 2천만 형제여 같이 힘쓰십시다." - 종락

1930년 그가 33세 되던 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시카고 셔우드 음악학교에 입학하여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한다. 약 2년에 걸쳐 과정을 끝내는 동안에 흥사단 가입하여 흥사단 단원으로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한다. 귀국하여 이화여전 강사, 경성보육 음악주임, 빅터레코드 주임, 경성방송 관현악단 지휘자를 잇달아 지낸다. 그의 말년에는 일제의 사상탄압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수양 동우회'라는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안창호, 이광수 등과 함께 종로 경찰서에 갇히게 되었다. 72일간의 감옥생활은 인간 이하의 고초와 고문의 연속이었다. 감옥을 드나드시면서 아버지께 흰옷을 넣어드리는 어머니는

번번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오는 아버지의 옷을 받아들면서 이렇게 애청을 하였다고 산다. "이 분은 몸이 약하신데 제가 대신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일본 경찰은 조롱된 어조로 "당신도 콩밥이 먹고 싶어" 하면서 반문하였다 한다. 마침내 그는 녹막염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 석방되었다. 석방을 시키는데는 조건이 따르고 있었다. 일본에 협조하는 글과 곡을 지으라는 명령이었다.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그는 총독부의 강압으로 직장을 하나씩 잃게 되고 한때는 무직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 후 그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얻은 녹막염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고 말았다.

44세를 일기도 짧은 인생을 살고 간 흥남파는 한국 근대음악의 선구자로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살다간 위대한 민족 음악가였다. 그가 남긴 많은 업적들과 주옥같은 가곡들, 언제나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요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동상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새겨지게 되었다. 그가 살던 서울의 흥파동 집은 서울시가 구입하여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90호'로 지정되었고 '흥남파의 옛집'이라 간판을 부치게 되었으며 그 집에서는 매년 11월 첫째 일요일마다 가곡의 밤이 열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해마다 난파 음악제와 난파 콩쿠르가 열리고 있으며, 작곡,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수상자들이 배출되어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제1회 수상자로 시작한 '난파상'은 한국 최고의 음악상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40명의 수상자를 내었고, 정명훈, 조수미, 강동석, 김남윤, 백건우, 장한나, 최현수... 등 등을 비롯하여, 우리 필라델피아의 자랑인 Sarah Chang을 포함하고 있다.

난파가 남긴 대표작으로는: 가곡으로 성불사, 옛동산에 올라, 봄처럼, 봉선화, 봄, 개나리, 장안사, 관덕정, 사랑, 금강에 살리라, 사공의 노래, 옛강을 찾아와, 그리움 등으로 민족적 정서와 애수가 담긴 노래들이다.

동요로는 고향의 봄, 달맞이, 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 개골개골 개골이, 달마중, 오빠생각, 하모니카 등으로 우리 어린 시절 귀에 익은 곡들이다. 작품으로는 동요 100곡집, 바이올린 독주곡, 관현악 반주가 붙은 독창 모음곡 '나그네의 마음' 등이 있다.

<전면에서 계속> 혈중에 너무 많은 양의 cortisol이 있다고 감지한 뇌하수체가, 부신피질에 신호를 보내서 공장을 가동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나, 이미 부여버린 부신피질은 그 명령에 아랑곳없이 마구 생산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feedback system(되먹이기 장치)가 말초 내분비 기관이 아닌 중추, 특히 시상하부(hypothalamus)와 뇌하수체(pituitary gland)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망가져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부신피질에서 cortisol을 다량 생산했을 때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DST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Cushing씨 병에 비해 cortisol 수치가 좀 덜 올라간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동안 정신과에서는 정신병을 진단할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쪽팔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도 보란 듯이 혈액검사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고만장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한테 DST를 지시하는 전문수련의(resident)는 거의 없다.

어떤 검사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필요충분조건으로 민감성(sensi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이 둘 다 높아야 하는데, 대형 우울증의 경우 그 민감성은 65% 이상이나 특이성은 40%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즉 가짜 양성반응(false positive)이 60% 이상이라면 그 검사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먼저 예를 든 Cushing씨 병을 비롯해서 뇌하수체의 이상, 뇌종양, 치매, 중풍은 물론이고 약물중독, 뇌매독, AIDS, 만성 쇠 퇴 성 질환(chronic debilitating disease), 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및 각종 불안 신경증에도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물이나 호르몬 제제도 검사 결과를 흐려놓는다.

그래서 그냥 좋다가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대형 우울증의 원인에서 내분비기능 장애설은 막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찍이 히포크라테스 할 아버지는 근 2500년 전에 우울증은 검은 담즙이 많아서 생기는 'melancholia'라고 해서 체액설(액소설, humoral theory)을 주창한 바 있다.

원고모집안내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지 '시계탑'에서는 동문여러분들의 유대와 결속에서 오는 좋은 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내용:

동기 및 동문소식, 지부 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시, 기행문, 서간문, 독후감,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사진, 그림 등의 작품.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가급적 1면이상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농담골목'에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고: (1) 종교적인 내용 (2) 다른 신문이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글

보내시는 방법:

학년과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고, 원고는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사용시는 Word 혹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시고 CD 도 동봉바랍니다. E-mail로 보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kim68@nyc.rr.com

61년 동기 이베리아 반도 여행 II

손기용 (61, 오하이오)

톨레도, Toledo

마드리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스페인 천년의 고도이며 중세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천혜의 도시이다. 톨레도는 스페인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곳으로 간주되어 시 전역이 국립기념지로 선포되었다.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유적이 공존하던 장소이다. 또한 그리스 출신 화가인 엘 그레코가 정착해 생을 마친 곳이기도 하다. 톨레도는 기원전 2세기에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건설돼, 5-8세기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서고트(Visigoth)왕국의 수도였으며, 8세기에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한 이후 11세기까지 즐본 수도의 역할을 하였다. 톨레도는 코르도바 칼리파의 지배하에 황금시대를 누렸다. 1085년에는 기독교인 카스티야의 알폰소 6세가 톨레도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1561년에는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궁정이 옮기게 된다.

우선 톨레도를 근처의 언덕에서 보며 엘 그레코의 '톨레도'라는 그림 2점을 생각해보기도 한다. 도시가 타호 강(Rio Tago)의 굽이에 4분의 3이 둘러 쌓여있고, 화강암으로 된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적을 방어하기에 좋은 요새였다.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알카사르(Alcazar) 및 톨레도 대성당과 펼쳐진 시가지 풍경은 아름답지만 하다. 시 외곽에 관광버스(시내버스는 예외)를 세운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 천천히 걸으면서 시가지를 구경했다. 시내에는 미로 같은 골목으로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며 경사지고 지면이 울퉁불퉁하다. 톨레도 구시가지인 소코데베르 광장(The Plaza de Zocodover)은 무어인 시대의 장터로 아직 시의 주요 광장이다. 상점, 간식당 등이 많이 있다. 13~15세기에 지어진 톨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가톨릭의 총본산이다.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266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493년에 완공되었기에 프랑스 고딕과 스페인 식의 장식들이 있다. 파사드(Facade)의 중앙에 있는 면죄의 문, 왼쪽에 있는 시계의 문, 오른쪽에 있는 사자의 문으로 되어 있는 3개의 문이 이색적이다. 제단과 가대는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대사원의 내부에서 장미창, 스테인드글라스, 보물 실 등을 구경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가이드로부터 성당의 구조, 성인과 예수님을 그림에서 어떻게 구별하나, 4 성인의 그림이나 조각에서의 특징 등 여러 가지를 배웠다. 개인적으로 나의 불만은 이 성당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산토 토메 교회(The Santo Tome Church)는 엘 그레코의 명화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가 소장되어 있어 세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 그림에서 세인트오거스틴과 세인트스테판이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에 나타나 그의 신체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뿐 아니라 이 그림에는 엘 그레코 및 그의 아들이 밖을 보며 있었다. 이 교회의 탑은 무데하르 양식으로 지어졌다.

세고비아 (Segovia)

마드리드 북서쪽 60 km(약 40 마일) 지점에 위치하며 산맥과 굴을 지나가야만 했다. 가는 길에 언덕위에 성채 그리고 집시들이 산다는 판자 집이 보인다. 세고비아는 산등성이에 있는



고대도시로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중요한 군사기지였다. 세고비아를 들어가며 고딕양식으로 건설된 대사원(Cathedral)을 보았다.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백설 공주의 배경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중세고성 알카사르(Alcazar)를 구경했다. 알카사르는 옛 무어인의 성이라는 뜻이다. 이 알카사르는 이슬람교국 군주인 술탄이 살던 곳이고, 1862년의 화재 후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재건되었다. 외부는 여러 개의 탑이 있는 성채모습이고, 내부의 일부는 아랍 양식이다. 조그만 박물관도 있다. 여기서 1474년 이사벨 여왕이 카스티야 왕국의 여왕으로 즉위할 것을 선언하였다. 구시가지의 비탈지고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오며 스페인의 유명한 에피타이저인 '타파스(tapas)'도 보고, 세고비아의 유명한 '코치니요 아사도'도 보았는데, 코치니요 아사도(Cochinillo asado)라는 음식은 생후 약 40일 된 새끼 돼지를 내장을 빼고 통째로 구운 값이 비싼 요리이다. 돼지 머리까지 통째로 나오면 이를 접시로 잘라서 먹는데 맛이 대단히 좋다고 한다. 헤밍웨이가 스페인에 자주 오며 즐겨 먹던 음식이다. 길가 언덕에 서있는 코치니요 요리로 유명한 요리사의 동상을 보았다. 로마시대 수도관(Roman aqueduct)은 식수를 운반하기 위한 수도교(水導橋)로 1세기말에 로마인이 화강암으로 만들어 20세기 초까지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의 토목공사 기술에 감탄할 뿐이다. 길이만 해도 728m, 163개의 아치, 가장 높은 곳이 28.29m로 되어 있다고 하니 그 규모 면에서도 굉장하다. 벽의 움푹 들어간 곳에 계시는 성모 마리아를 멀리 볼 수 있었다. 커다란 돌 옆에 구멍이 있는데 이는 집계를 이용하여 큰 돌을 들어올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알카사르에서 엘시드의 그림을 보았기에 잠깐 엘시드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이슬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북쪽의 기독교 세력들이 남진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레콩키스타(Reconquista, Reconquest, 국토수복, 8-15세기)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유명했던 인물은 아랍어로 '나의 군주'라는 뜻의 '미오 시드 (Mio Cid)'의 주인공인 11세기 스페인의 전설적인 영웅 엘시드(El Cid, Rodrigo D'az de Vivar, 1043 near Burgos-1099, Valencia)이다. 그는 카스티야와 레온의 부르고스(Burgos)근처에서 귀족으로 태어나서 카스티야 왕인 페르난도 I세 밑에서 일하다 쫓겨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운다. 1094년에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무어인의 발렌시아를 정복한 뒤 그들로부터 뺏은 전리품과 영광을 자기들 몫으로 왕에게 돌린다. 그는 군사령관으로서 부하들에게 관대했고, 가족에게 자애롭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무훈은 1180년 '엘시드의 노래'라는 작자 미상의 서사시로 엮어져 더 유명하게 된다. 찰튼 헤스톤과 소피아 로렌이 주연하는 'El Cid'라는 영화에서 다시 라만차 평원과 11세기 생활을 보고, 스페인의 재정복 기간의 싸움도 생각해 보았다.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의 내전(1936-1939년)을 다룬 소설인데 세고비아 근처의 산악지방에서 공화정(Republican)을 위해 싸우는 작은 집단의 게릴라들이 프랑코의 민족주의자(Nationalist)에 대항하여 싸우며 한 계곡의 다리를 폭파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미국에서 의용군으로 온 선생(게리 쿠퍼)과 순결한 시골 처녀(잉그리드 버그만)가 게릴라를 도우며 싸우다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영화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세고비아로 가는 도중, 마드리드에서 약 40km (25 마일) 거리에 있는 로스 카이도스 계곡에 있는 사자(死者)들의 계곡(Valley of the Fallen, Valle de los caidos)에 갔다. 이곳에는 프랑코 독재 시절 스페인 내전 (1936-1939년) 전사자 4만여 명의 유해를 모신 성당(basilica)이 자리하고 있다. 바위산을 250m 깊이로 뚫어 만든 세계 최대의 성당인데, 보통 성당은 입구에서 제대까지 184m 라고 한다. 성당 바로 위에는 높이 150m의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제단 앞에는 프랑코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다. 기다란 터널 모양 내부의 벽면과 천장에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다. 성당 입구에 있는 광장에서는 인근의 평원과 산지들이 내려다보인다. 이 거대한 십자가와 성당이 공화정(Republican)을 위해 싸운 좌익계통의 정치범 2만여 명의 강제노동으로 16년에 걸쳐 만들어졌는데, 프랑코(민족주의자, Nationalist)가 사후에 이곳에 안치된 탓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성당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마드리드 (Madrid)

1561년 필립 II세가 수도로 선정한 후 점차로 발전한 비교적 신도시로 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수도로서 왕궁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다. 근래에는 공업도시로서도 중요시 되고 있다. 해발 660m에 바다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무덥기도 한 대륙성 기후를 갖고 있다. 침울한 마드리드 시민들은 이곳의 일기를 "9개월의 겨울과 3개월의 지옥"이라고 서술한다.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왕궁중의 하나라는 왕궁(Royal Palace)의 내부 관공은 공식행사가 있어 왕궁의 외부만 보았다. 마드리드의 중심인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은 '태양의 문'이라는 뜻으로 마드리드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복잡하며, 집시가 많기 때문에 항상 핸드백이나 주머니를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이 광장에서는 스페인에서 모든 거리가 시작하는 원점인 'Kilometer Zero'와 마드리드의 상징인 곰의 조각을 보았다. 광장 변두리에는 'Tio Pepe'라는 남부 스페인 원산 백포도주 세리 주(酒)의 광고도 있었다. 버스를 타고 큐벨레 플라자(The Plaza de Cybeles)를 지나가는 동안 사자가 끄는 수레를 타고 있는 큐벨레 여신의 사진을 간신히 찍을 수 있었다. 큐벨레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대지의 여신으로 위대한 어머니 (the Great Mother)라 불리고, 곡물의 결실과 다산, 자연과 야생동물(특히 사자, 벌)을 상징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페인 플라자(Plaza de Espana)를 보았다. 이곳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 세르반테스를 기념해 조성된 광장으로 중앙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있다. 그 앞에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있고; 그 아래에는 말(馬)을 타고 있는 돈키호테; 당나귀를 탄 그의 종자 산초 판사; 돈키호테의 오른쪽에는 그의 연인 들시네아가 있고; 산초 판사의 왼쪽에는 그의 부인 산초 여사가 있다. 마요르 광장(Main Square)은 예전 모든 시민 집회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종교재판, 투우, 각종 축제 등 마드리드 시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라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광장의 중앙에서 아르헨티나 전시회(Argentina Fair)가 있어 눈에 익은 아르헨티나 탱고를 보았다. 콜럼버스 광장(Plaza de Colon)에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국기와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는데 지나가며 잠깐 볼 뿐이었다. 소피아 왕비 국립 미술관 (Reina Sofia National Museum)에 들어가 스페인 화가들, 특히 피카소, 미로, 달리의 대표 작품을 보았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이 미술관에서 제일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있었다. 게르니카(Gernika-Lumo)는 스페인 바스크주의 작은 도시로, 1937년 스페인 내란 중 프랑코를 지원하는 독일 나치의 공중 폭격에 의하여 폐허가 되었다. 마침 그 해에 열리기로 예정된 파리 만국 박람회의 스페인 관 벽화제작을 의뢰 받고 있던 피카소(Pablo Picasso)는 조국(공화정)의 비보에 접하자 한 달 만에 대 벽화를 완성하고 게르니카 GUERNICA (1937)라고 이름 지었다. 프라도 미술관(Prado Museum)의 프라도는 '초원'이라는 뜻이다.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로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를 중심으로 방대한 12~19세기의 회화 8,000여 점을 소장한 최대 규모의 미술관이다. 이외에도 플랑드르, 이탈리아 예술의 독특한 소장품들도 있다. 고야의 <옷을 입은 마야 La Maya Vestida>와 <나체의 마야 La Maya Meninas>, 벨라스케스의 궁중 생활에 대한 그림, 그레코와 보슈의 그리스도를 테마로 한 종교화 등을 보았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실망했다.

바르셀로나 (Barcelona)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다.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의 가장 분주한 항구의 하나로 문화, 예술, 상업 및 스포츠에 있어 마드리드와 맞서고 있다. 마드리드는 방사형 모양의 길, 바르셀로나는 바둑판 모양의 길로 되어 있다. 1900년의 아르누보(Art nouveau, 신예술, 新藝術) 양식의 부류인 'Modernism (예술상의 현대주의)'을 많은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세계에서 Modernism 건축물이 제일 많은 도시이다. 천재 가우디와 미로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피카소가 이곳을 무대로 활약했다. '태양의 도시'로 비는 적게 내리지만 습기가 많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한다.

몬 주익 언덕(Hill of Montjuic)은 유대인(juic)의 산(mont)이라는 뜻으로 고도 213m에 있어 아름다운 바르셀로나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1992년 세계 올림픽 경기장(Olympic Stadium)이 이곳에 있다. 이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경기 마지막 300-400m의 언덕길에서 일본선수를 앞질러 금메달을 딴 곳으로 우리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이 언덕에 황영조 선수의 '뛰는 기념모습'의 상이 있다. 람블라스 거리(Las Ramblas)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인 북쪽의 카탈루냐 광장에서 남쪽 항구의 라파스 광장에 이르는 약 1km의 대로를 말한다. 람블라스 거리는 사람들이 걷는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으로 차가 다니게 하는 특이한 구조다.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아래는 새장 안의 새를 파는 사람, 화려한 꽃집 들, 액세서리 가게, 음악가, 무언극(마임) 배우 등을 본다.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이곳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이 거리의 중간쯤에는 산호세 시장이 있는데, 안에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고기 등이 진열된 가게들이 많이 늘어서 있고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람블라스라는 말은 '급류'라는 뜻으로 원래는 작은 시내가 흘렀으나 19세기경에 도시가 확장되며 현재와 같은 산책로가 있는 대로로 바뀌었다. 최대 후원자인 에우세비오 구엘을 위해 가우디가 지은 구엘공원(Park Guell)은 나지막한 동산에 있는 작은 공원이다. 원래는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는 도심에서 떨어져있고, 언덕에 있기에 두 채의 집밖에 팔리지 않았다. 구엘 공원 정상에 올라가면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비스듬한 버팀기둥과 버팀벽으로 이루어진 동굴 같은 그들이 지는 산책로 길이 인상적이다. 버팀 기둥은 곧 솟아 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이들은 주위의 꽃나 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른 공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엘 공원의 정문은 특이한데 마치 동화속의 집 같은 두 채의 집이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집 위에는 버섯 조각이 있고, 다른 집 위에는 깃대가 있었다. 입구의 철제의 문도 그가 즐기는 야자수 잎으로 되어 있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으로 계단이 나오고 계단 중간에 모자이크의 용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더 위로 올라가면 도리스 양식의 기둥과 천정으로 이루어진 신전과 같은 장터(?)가 있다. 도자기를 잘라 모자이크로 장식한 벤치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길다란 벤치는 공원 사이를 꿈틀대며 기어가는 화려한 색채의 용과 같았다. 카사 밀라(Casa Mila)는 가우디의 설계로 지어진 저택인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며 보았다. 곡선을 많이 이용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트요 저택(Casa Batllo)은 가우디가 전면 개축한 주택이다. 벽면에 채워진 색색의 유리 모자이크에 빛이 반사되어 매우 아름답다. '안데르센의 동화에 나오는 건물'같이 보인다. 이 건물 정면에서도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보았다. 정면 거리 쪽 상부는 질푸른 빛의 물고기 비늘과 같은 기와가 덮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용의 비늘이다. 발코니는 용의 눈으로 이루어졌으며 용의 다리와 용의 비늘이며 용이 잡아먹은 희생자들의 해골과 뼈이다. 전설에 의하면 성조지(Saint George)는 카탈로니아 지역(때로는 영국)의 성인으로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용을 죽였다고 한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옥상에는 이상하게 생긴 굴뚝도 보았다.

성가족(聖家族) 성당(사그라다 패밀리아, Church of the Holy Family, Temple de la Sagrada Familia)은 1882년 가우디의 스승인 프란시스코 데 비야루가 착공한 후, 1892년에 30세인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공사를 인계받아 1926년 죽을 때까지 직접 건축, 감독을 했던 건물로 교회의 일부만 완성하였다. 지금도 건축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광객의 입장료가 주요 재원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지나, 2030년에는 완공 예정중이다. 구조는 크게 3개의 파사드(facade,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와 18개의 탑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파사드'는 가우디가 완성

했다. 그리고 '수난의 파사드'는 1980년 후반에 수비라크(Josep Maria Subirachs)에 의해 완성되었고, '영광의 파사드'는 아직 착공도 되어있지 않다. 동쪽 탄생의 파사드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유년 시절;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장면; 이집트와 약탈자로부터의 탈출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립; 성직자들 사이의 예수, 목수 일을 하는 예수, 성모마리아의 예수 잉태; 나팔 불고 있는 천사 등을 보인다. 수난의 파사드에는 여의고, 수척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의 조각상; 최후의 만찬;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얼굴을 Veronica가 닦으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남았다는 천; 배반자 유다의 키스 등이 있다. 이 파사드에 숫자판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더하든지 33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죽을 때의 나이이다. 3개의 파사드 위에는 각각 4개의 탑이 세워져 12개의 탑이 세워지는데, 각각의 탑은 12명의 사도(제자)들이다. 또한 4명의 복음사가(福音史家, the Evangelists), 성모 마리아 및 예수님의 침탑도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 탑의 높이는 170m로 제일 높을거라고 한다. 가우디가 완성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목수수모양의 탑이 유명하다. 하늘을 향하여 치솟은 탑은 그 전체 곡선도 불만하다.

여러 가지: 이번의 이베리아 반도 여행을 하며 많은 관광객, 특히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들도 보며 관광업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잡상을 순서 없이 써보았다.

우리끼리: 더욱 좋았던 것은 같은 '늙은 동창'끼리 여행을 하니 '빨리, 빨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여행사에 부탁도 해놓았다. 식사 때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서로 '여보'라고도 불렀는데 '여보'는 '여기 보시요'라는 뜻으로 우리들에게 통했다.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은 인종적으로 다양하다. 전에는 그들이 섬질이 급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은퇴하거나 늙으면 연금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들은 하루에 2번씩 잠을 보러 나간다고 한다. 점심 때 외식하는 할머니들을 드물지 않게 보았다. 많은 스페인 사람들은 점심 식사 때 광장의 그늘아래에서 식사를 하고, 옷도 점잖게 잘 입고, 문신(文身, tattoo)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 책임감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마드리드 비행장의 검문을 지나는데, 그들은 서로 이야기 하느라고 한눈을 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우리 한 동기는 검열대를 지나며 물병을 갖고 나올 수 있었다. 공중도덕, 특히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았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길을 잘못 지나가다 다치면 자동차 운전수에게는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차에 손상이 있으면 행인이 보상해야한다니 그런지도 모르겠다. 모든 개인 자동차는 미국과는 달리 작았다.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깨끗하였다.

지방 관념: 스페인 사람들은 4개의 공식 언어와 7개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고 17개의 자치주에 나누어져 살고 있다. 카탈로니아와 바스크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페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영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보다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바르셀로나 비행장에서 "누가 당신의 집을 썼냐?"라고 영어로 묻는데 알아듣기 힘들었다.

취미: 스페인에서 축구는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우는 스페인의 국기(國技)이다. 축구나 투우를 보고 싶었지만 표를 구할 수 없었다. 정열적으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플라멩코가 눈에 선하다.

문화: 이 땅에 머물던 무어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아 여기저기서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타일 문화도 두 나라에 다 발달되어 있었다. '동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 화가 파블로 피카소, 고야, 벨라스케스, 엘 그레코, 달리, 미로; 천재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오페라 가수 도밍고(Placido Domingo)와 카레라스(Jose Carreras)도 생각해 보았다.

음식: 점심과 저녁식사는 현지식, 중국식, 그리고 한국음식을 먹었다. 현지식으로 먹을 때는 우아한(?)한 식당에서 샐러드, 주식, 후식도 먹었다. 현지식에는 어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전에 스페인을 여행할 때 '해물 스페인 식 솥밥, Spanish rice'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아 섭섭했다. 커피가 하도 진하고 써서 즐기지 못했는데, 집에 와 미국식의 커피를 마시니 좋기도 하다. 호텔은 비교적 중, 상급이었다.

변소: 변소는 대부분이 깨끗하고, 돈을 내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변소 표시는 'Aseos, Toilet'로 써있고, 'manos'라고 쓰여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기후: 대서양과 지중해의 영향으로 기후가 온난한 것 같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낮에는 덥고(75-80°F) 저녁에는 약간 쌀쌀했다. 10일 여행하는 동안 저녁에 하루만 약간 비가 왔다. 너무나 날씨가 좋았기에 우리들 모두가 축복받은 그룹이었는지 모르겠다.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적은데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여 국지적으로 스텝 또는 사막과 같은 경관을 나타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온도가 약 75°F로 더운 날씨였는데 이곳 미국 중부에 오니 온도가 약 50°F로 쌀쌀함을 느꼈다.

안전성: 소지품 조심하라고 가이드에게서 여러 번 경고 받았다. 더구나 근래에는 스페인의 실업률이 16%에 달한다 하고, 13년 전 스페인 방문 중에는 택시 운전수에게 부당한 가격을 지불한 적도 있어 불안하기도 했다. 핸드백을 소매치기당한 이야기; 한 사람이 일부러 부디 치어 넘어지게 한 후 다른 사람이 소유품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앞에서 슬어지면, 이를 도와주다가 당한다고 하고; 때로는 옷에 묻은 것을 털어주는 척 하며 주머니를 '털어간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시해라'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한국인 여행사를 통한 여행: 더러는 너무나 길만 보고, 많이 보여준다는 느낌이 있기도 했지만, 우선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니 좋다. 음식 세끼가 포함되고, 식당에 도착하자 곧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놓으니 좋다. 유럽에 있는 한국인 가이드들이 아주 좋은 것 같다. 이번 가이드로부터는 역사뿐 아니라 성당의 구조, 건축물 양식, 상징물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청력이 좋지 않아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들으니 이해가 곧 되었다. 소위 '선택 관광'이 적어서 좋다. 법적인 문제이긴 한데 많은 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의 '지방 가이드, local guide'를 써야하기에 그들이 우리와 같이 다니었지만 한국인 가이드가 거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여행사는 아무 하는 일없이 쫓아다니는(?) local guide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니 약간 억울하다.

장황하게 길게 쓴 여행기지만 결론으로 칠십이 넘은 노인들이 11일간의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끝내고 무사하게 집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빨리, 빨리'하지 않고, 비교적 좋은 호텔에서 묵으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했고, 많이 배웠고, 식사 중에는 많은 대화를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건강이 좋지 않은 동기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며, 이런 여행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 가 생각도 해본다.

봄비는 온데

이한중(65, 미시간)

봄비는 온데,
 밤새도록 꿈길에서,
 꺾기에서,
 조록조록, 은은하게,
 하루종일, 푸근한 봄바람과 함께,
 저 처마 끝에서,
 조록조록, 은은하게,
 봄비는 온데.

달력에 의하면
 아직 봄은 아니건만
 분명코,
 봄비는 어제밤,
 오늘 하루종일
 오고 또 오느구나.

지난 겨울 내내
 이 지구촌 그 수많은 곳곳에서
 그 수많은 인간들의 처참한 외침들,
 그 수많은 내환자들의 고통의 신음들,
 그 수많은 착한 인간들의
 가슴에서 흘러 나오는
 기도들에 못이겨
 분명코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창조주의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라
 봄비는 일찍 오나보다.
 저 흠오르진 눈덩이들
 푸석 푸석 녹아버리듯,
 우리를 가슴에 응어리진
 그 수많은 아픈 것들 녹혀보라고
 봄비는 일찍 오나보다.

조용한 토요일 저녁,
 온세상은 고스란히 봄비에 흠뻑젖어
 차분하게 안정되어 잠들 것 같구나.
 오늘 하루라도
 이 지구촌은 지진도 없고,
 자살 폭팔도 없고,
 서로 총쏘는 잡음도 없이
 평화롭게 잠들 것 같구나.

오, 나는 묵묵히 기도해본다.
 이 지구촌의 인간들이여,
 이 이른 봄비, 그분 사람의 손길,
 느껴보라.
 저 나무들, 저 동물들,
 저 바위들과 같이
 흠뻑 젖어보라.
 이웃을 사랑하고 적을 사랑할수있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보라.

지구촌이여,
 이 하루밤이라도
 평화롭게 잠들어 달라고,
 나는 묵묵히 기도해본다.

실 감는 김연아

서 량(69, 대뉴욕)

옛그제 김연아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판에서 뱅그르르 뛰어올라 급회전하는 장면이 아무래도 험사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의 과문을 일으켰다.

'figure'는 13세기 고대불어에서 모양(shape, form)이라는 뜻이었고 나중에 '마음 속에 그리다'라는 의미도 파생됐다. 그리고 'skate'는 고대영어로 정강이 혹은 정강이 뼈라는 뜻이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소리지만 스케이팅의 시초는 4000년 전 핀란드의 남부에서 비롯됐다 하고, 그때는 동물의 뼈를 신발 밑에 부착시켜서 얼음 위를 질주했다.

'form'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말로 '폼'이라 한다. 김연아의 스케이팅은 정말 폼이 난다. 스포츠에서는 뭐니뭐니해도 폼이 다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연아의 몸놀림에는 일본 선수 아사다 마오에 비하여 어딘지 모르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준다. 아니다. 사람의 동작은 내용과 형식이 일치해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김연아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고 피겨 스테이팅에서는 spin(급회전)과 jump(뛰어 오르기)와 footwork(발놀림)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시한다는 것을 배웠다.

'spin'은 고대 영어에서 실을 감는다는 뜻이었다. 스파이더맨의 'spider'도 거미가 거미줄을 짜는 의미에서 'spin'에서 유래한 단어다. 'spin'을 우리말로 '물레 짠다'라 하고 명사로 '물레질'이라 한다. 물레방아처럼 천천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순수한 우리말이다. 속담에 '밤새도록 물레질만 하겠다'는 한 여자가 애인을 기다리며 물레질만 하다가 공연히 밤을 새우는 상황으로, 할 일을 하지 않고 딴 짓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뜻.

'spinster'는 14세기 중엽에 생겨난 단어로써 '물레 짠 여자'라는 뜻이

었는데 18세기 초에 '노처녀'라는 의미가 됐다. 노처녀는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심정을 버릴 짜는 행동으로 해석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에 나오는 <물레 짠 그레첸>도 독일어로 'Gretchen am Spinnrade'라 한다. 옛날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실 감는 그레첸>으로 나왔던 기억이 당신은 혹시 나는지.

'jump'에는 공격적인 뜻이 내포돼 있다. 그래서 'He jumped me'라 하면 '그 놈이 내게 와라 덤벼들었다'는 슬랭이다. 김연아는 그렇게 공격성과 유연함을 잘 버무리 하는 재능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피겨 스케이팅은 발놀림이 부산스럽다. 한시도 가만있지 않고 얼음 위를 뛰어다닌다. '놀림'은 '놀다'의 명사형. 발이 자유자재로 놀아야 우리는 기쁜 법. 스포츠도 직장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고되지 않고 쾌적한 놀이가 된다. 고스톱 같은 노름도 '놀다'의 또 다른 명사다.

인생을 고진감래(苦盡甘來)에 비유해서 고생을 하며 살라고 배웠지만 당신은 맨날 그렇게 인상을 뽀뽀 하면서 살아야만 하겠는가. 아사다 마오의 돌같이 굳은 표정에 비하여 김연아의 저 유연한 웃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오래 전 우리 유행가 <노랫가락 차차차> 가사가 떠오른다. 젊어서 백수 건달로 지내라는 충고라는 곡해 때문에 한때 금지곡이었던 이 노래는 인생의 고락을 마음 폭 놓고 여유 있게 놀듯이 대하라는 제언이 바닥에 깔려 있다. 역시 인생의 금메달은 삶을 즐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 늙어지면 못 노나니 / 화무는 삼일홍이요 /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 /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 화란춘성 만화방창 /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동근 세상

허선행(64, 대뉴욕)

누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온 사실이었지만 아직도 알쏭달쏭한 것이 있기에 몇 자 적어 보고 싶어졌다.

내가 알기에는 희랍시대, 말하자면 기원전 600년대, 그리스의 학자들이었다고 전해져 왔다. 따지고 보면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Columbus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었다.

실제로 몇 만 년 전부터, 아니면 그 전에도 지구인들은 하늘, 별, 해, 달 그리고 우주까지도 둥글다고 믿어왔지만 증명은 못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저 거대한 우주는 결국 둥글다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무수한 별들까지도 모두 둥글다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믿는다.

우리 신체구조의 기본단위인 세포도 둥글고 이 세포의 결합으로 자라고 있는 아기의 집도 둥근 구조(자궁)임을 비롯해서 부모형제, 친구, 가정 모두가 둥근 영역에서 살다보면 우리의 옛 노래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글 둥글 삼시다."가 그진실을 '멋있고 뜻 깊게' 표현한 것 같다.

골프를 치다가 가끔 느낀 것이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종이 쪽지가 골프공 같이 둥글게 보이듯이 외형이 모

가 있고 각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둥근 세상 원리에 부합되어 간다는 자연적인 감성이라고 본다.

Stephen Hawking이 주장한 "Big Bang"의 원리도 공알보다 더 작은, 최대로 축소된 둥근 알맹이가 팽창되어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크기의 우주가 태어났다는 내용자체도 팽창의 원리가 둥근데서 시작해서 둥근 우주가 생겼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 육체의 구조를 보아도, 세포 자체는 이미 말했지만, 머리통, 눈동자, 콧구멍, 귓구멍, 입, 유방 등등 그리고 몸통 자체도 아예 둥글거나 둥근데서 시작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큰 뜻도 그 근본이 둥근 것에서 시작됐고(사람이 둥글듯이)우리 나라에서 시작한 그리고 너무 뜻 깊게 명명한 '원불교'의 '원'도 이런 삼라만상의 원리 즉 둥글다는 데서 인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예술인은 인간이 겪는 크고 작은 불화, 압력, 마찰 등등은 우주라는 둥근 덩어리가 포용한다는 우주의 섭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뉴욕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긴 이야기를 간단히 줄여서 말 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사는 한 모든 것은 원(Circle)과 구(Sphere)에 부합되어가며 직선은 곡선 속의 일부이며 곡선을 위해서 마련된 두 점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일 뿐이라는 것을 추가하면서 우리는 이 곡선체의 합병인 둥근 우주 속에 있는 아주 아주 작은 '지구'라는 둥근 공간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농담골목

경찰이 바지의 지퍼를 안 잠군채 걸어가는 사람을 잡아 disorderly conduct 죄로 동네 법정에 데리고 갔습니다. 판사가 그의 이름, 주소, 가족상황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떴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경찰을 보고 "이 사람은 바지 지퍼를 잠글 새가 없었소" 라고 했습니다. (면)

여성이 본 남자의 종류
소년은 부속품 / 총각은 신제품 / 약혼자는 특허품 / 남편은 필수품
이혼남은 재고품 / 홀아비는 중고품 (이덕송)

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술은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거지로 만듭니다. (김세-)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모기들은 빨대기가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얼굴 피부가 두꺼워서 입니다. (허선규)

법대강의실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강간과 간통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 두 가지 다 해보았는데 별로 차이점을 모르겠던데요."
(최순채)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오는 4월에 출판될 시계탑의 편집을 위해서 3월 17일 수요일 저녁 6시에 뉴욕 후러싱의 청해진에서 모였다. 원고가 다른 때보다 적게 들어와 어떻게 장수 채울지 고심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사가 많이 나올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위원들도 이럴때 원고를 쓰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모두 찬성하였다. 이번 모임에서 한가지 마음 아픈것은 이유찬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낸것이다. 곧 한사람을 보충할것이다. - 출판위원장 김병석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172-10 45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8
e-mail: snucmaa@yahoo.com
Tel: (718) 888-2622 / Fax: (718) 888-2608